

文學碩士 學位論文

梁啓超로부터 申采浩로 수용된  
사회진화론 인식에 관한 연구

-梁啓超의 新民說이 申采浩의 新國民說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Liang Qi-chao and Shin Chae-ho's  
Perception for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指導 金 泰 萬 教授

2002년 12월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동아시아학과 李素銀

文學碩士 學位論文

梁啓超로부터 申采浩로 수용된  
사회진화론 인식에 관한 연구

-梁啓超의 新民說이 申采浩의 新國民說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Liang Qi-chao and Shin Chae-ho's  
Perception for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指導 金 泰 萬 教授

2002년 12월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동아시아학과 李素銀

本 論文을 李素銀의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_\_\_\_\_ 인

위원장 \_\_\_\_\_ 인

위원장 \_\_\_\_\_ 인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2002년 12월 21일

# 목 차

## 영문초록

### I. 서론

### II. 진화론 수용의 전제

1. 진화론의 정의 및 내용
2. 동아시아의 국제정치환경과 서구사상 수용의 배경

### III. 한, 중의 진화론 수용 및 전개과정

1. 중국에서의 진화론의 수용과 전개과정
2. 한국에서의 진화론의 수용과 전개과정

### IV.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인식

1. 사상의 형성과 사회진화론의 수용
2. 신민설

### V. 신채호의 양계초의 영향으로서의 신민사상

### VI. 결론

## 참고문헌

**The Study on Liang Chi-chao and Shin Chae-ho's  
Perception for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On The Basis of Effect of Liang Chi-chao's Sin-min theory  
to Shin Chae-ho's Sinkookmin theory-

Lee, So-eun

Department Of East Asia  
Graduate School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has the purpose to study Liang Chi-chao and Shin Chae-ho's perception for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They are the representative intellectual of Korea and China from late in 19th century to early in 20th century when traditional value order is changed. From late in 19th century to early in 20th century, East Asian three countries became to face unparalleled crisis due to internal contradiction of traditional order and external impact of Western modern order. Specially, invasion of Western imperialism in earnest had intellectuals who previously absorbed in traditional thought to search the necessity to percept new reality and countermeasure for it.

Western authority revealed in the process of expansion was major cause that had revolution-oriented intellectuals to actively introduce Western thought. Utilitarianism, liberalism,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democracy,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other various Western thought were introduced but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was most rapidly introduced among them.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was suitable for ideology to support the right of the strong in imperialism country but did a different role for East Asian country.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became the theory to explain the reason that East Asian country became the weak in the struggle for existence, the method to be the strong and the necessity of modernization and civilization and provide the reasonableness for it. So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in East Asian country is transformed to not the theory to justify the interest of the strong but the theory to help the weak to become the strong by itself.

But the context of Western thought absorbed in East Asian countrie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method of intellectuals, the subject of absorption in each country. Specially, Japan was under diffe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to Korea and China from the view of international politic order of Confucianism area and showed lukewarm aptitude for rapid escape from international politic order of Confucianism area and rapid entry to international order of Western area through most sensitively reacting to Western menace although it was slow and narrow when it is compared to Korea and China. The resistance against new order on the basis of old order was so powerful so absorption of Western civilization was delayed.

Due to above reason, the type and context of absorbing Western thought of Korea was more similar to one of China and that Western thought introduced to Korea was not directly introduced from West but introduced through filtration of China so it has the type of indirect absorption. Specially, among many thoughts introduced to Korea,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was largely influenced by one of China, specially,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Liang Chi-chao largely influenced to one of Korea.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was introduced when traditional thought and Western thought was variously mixed and Liang Chi-chao and Shin Chae-ho were powerful in China and Korea respectively in the process that Western thought affects to intellectual's establishment of national thought. This paper starts studying with the assumption that two peoples' character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was similar because the transmission course that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was introduced to Shin Chae-ho via Liang Chi-chao was confirmed. The reason to select those two peoples as targets was due to judgment that two people could explain the contemporary social state well because those two peoples' thought was organized early in 20th century when the conflict between traditionalism and modernization was appeared and various ideologies was absorbed.

With those assumptions, this paper will unfold study on the basis of following articles.

First,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introduced to China and Korea and how it was developed?

Second, how Liang Chi-chao and Shin Chae-ho who affected to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of China and Korea recognized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Third, what function has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in the period of patriotic enlightenment and how it influenced to organization of the theory of nation.

Fourth, how Liang Chi-chao's Sin-min theory affected to Shin Chae-ho's Sinkookmin theory.

This paper was organized like follows.

Chapter II, Surveyed the context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of Spencer and Huxley as the assumption to absorb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Chapter III, On the basis of understanding absorption and unfolding process of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of China and Korea, in Paragraph 1, surveyed international politic environment of East Asia and the background to absorb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in Paragraph 2, surveyed the type to absorb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unfolding process of it.

Chapter IV, surveyed Liang Chi-chao's perception for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In Paragraph 1, surveyed Liang Chi-chao's organization of thought and type to absorb the theory of social evolution and in Paragraph 2, surveyed Liang Chi-chao's Sin-min theory.

Chapter V, surveyed Shin Chae-ho's Sinkookmin theory and the effect of Liang Chi-chao's Sin-min theory to it

Chapter VI, referred the result of study from Chapter I to Chapter V.

## I. 서론

이 글은 전통적 가치질서의 변화가 진행되는 19세기말-20세기초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양계초(梁啓超)와 신채호(申采浩)의 사회진화론 인식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19세기말-20세기초 전통질서의 내적 모순과 서구적 근대질서의 외적 충격으로 동아시아3국은 유례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서구제국주의의 침탈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시까지 전통적인 사고에 몰입해 있던 지식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인식의 필요성과 대응방식을 모색케 했다.

팽창과정에서 드러난 서구의 위세는 개혁지향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서구사상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주요동인이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 민주주의, 사회진화론 등 다양한 서구사상이 수입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진화론이 급속히 그리고 널리 수용되었다.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국가에서는 강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지만, 당시 동아시아국가에게는 이와는 다른 역할을 담당했다. 사회진화론은 왜 동아시아국가들이 생존경쟁에서 약자가 되었는지 이유와 어떻게 하면 강자가 될 수 있으며, 왜 근대화와 문명화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정당성을 제공하는 이론이 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국가에서의 사회진화론은 서구의 제국주의국가에서처럼 강자의 이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 강자가 되는 것을 돕는 이론으로 변형되었던 것이다.<sup>1)</sup>

그러나 동아시아 3국에 수용된 서구사상의 내용은 각국의 수용주체인 지식인들의 대응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일본은 유교적 국제정치질서에서 한국, 중국과는 상이한 국제환경아래 있었으며<sup>2)</sup>, 서구의 위협이 한, 중에 가해진 것보다 완만하고 소폭적인 것이었음에도 가장 민감한 대응을 보여 유교권 국제질서로부터의 신속한 이탈과 서구적 국제질서로의 급속한 편입<sup>3)</sup>을 하게 된다.

- 1)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구한말을 중심으로>, 한울아카데미, 1996, p10.
- 2) 일본은 중국과는 현격한 거리를 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중국과의 접촉 빈도 및 규모에 제약을 받았고, 심지어 明,清시대에는 중국과의 공식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중화주의적 국제정치나 유교로부터 구속받는 정도가 한국보다는 약한 경우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유교문명의 최주변부에 위치하여 그 혜택은 선별적으로 수용하되 유교적 국제질서에의 편입강도가 미약한 경우이기도 했다. 국제질서의 가장 주변부에 위치함으로써 유교문명에 대한 고립감과 열등감이 초래되었으나, 이것이 또한 18세기 이후 막부시대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보편적 원리로 추상화시켜 중국적 성격을 제거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전통적 미덕을 합리화하도록 한 결과 문화적 우월감과 자율성을 조성했다. ;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pp.42-43.
- 3) 일본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의 성격은 그 적용을 통해 일본정치의 국가주의화, 제국주의화 경향을 합리화하는 사상적 근거를 부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구사상의 수용형태 및 그 내용에 있어 한국은 중국과 보다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한국에 수용된 서구사상은 서구로부터 직접 도입된 것이 아니라 주로 중국의 여과를 거친 간접수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수입된 다양한 서구사상 중에서도 사회진화론은 중국의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양계초의 사회진화론은 한국 사회진화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전통사상과 외래사상이 다양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사회진화론이 유입되었고, 그것이 지성계의 국가사상 정립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계초, 신채호는 중국, 한국에서 각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사회진화론이 양계초를 거쳐 신채호에 수용되는 전과경로가 확인되고 있어<sup>4)</sup>, 이들의 사회진화론 사상의 성격이 유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이 두 사상가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의 사상이 전통성과 근대성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되는 20세기초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이다.

양계초와 신채호의 사상인식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자칫하면 사회상황을 무시한 연구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계초의 사상의 변화는 변법-혁명(또는 혁명에의 접근)-입헌(또는 개량)-보수주의(또는 문화주의)로 발전해갔다고 본다. 1898년 무술정변의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을 간 양계초는 대동론적 진보론과 유교적 사고에서 벗어나 1903년 중반까지 자주 '혁명'개념을 사용한다. 그는 혁명은 진화의 세계의 피할수 없는 법칙이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전제정치에 대한 혁명)·인종적(만주족에 대한 한족의 혁명)·도덕적(유교와 전제정치 때문에 부패되고 나약해진 도덕과 시대의 조류에 적용할 수 없는 도덕의 혁명, 양계초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새롭게 되는 도덕적 혁명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도덕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보았던 유교적 사전지식이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혁명을 주장하였다. 양계초의 정치적 입장은 1903년을 전후하여 보수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는 더 이상 혁명을 주장하지 않고 개명군주제(1906.01)를 주장하였다. 그는 개명군주제를 입헌국가로의 변형과 준비를 위한 역사적 진화의 법칙상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규정하고, 위기의 국가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제도가 바로 개명절대군주제라고 주장하였다. 이러

4) 양계초는 『천연론』을 출판하기 이전에 진화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고, 일본 망명 이후에는 가등홍지(加藤弘之)의 국가주의적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았다. 朴忠錫, 〈申采浩의 국가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9, pp.13-17참고.

한 그의 정치적 입장은 1906년 이후 성장하게 된 혁명론자들과 수없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신채호는 사회진화론적 자강사상과 양계초의 신민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시대를 생존경쟁과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시대로 인식하고 독립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강적 국민국가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신채호의 초기 국가관념은 한일합병 후 3·1운동을 경험하고 무정부주의론을 수용함으로써 무정부주의적 민중국가관념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국가관념은 신국민을 양성함으로써 자강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운동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사상적 방향을 통해 갖게 된 이상주의적 국가관념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계초의 신민설과 신채호의 신국민설이 확립되는 시기에 한정하여 이들의 사상을 살펴볼 것이다. 즉 양계초가 무술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한 시점부터 그의 사상이 보수화되기 이전까지<sup>5)</sup>, 그리고 신채호의 사상이 민족주의에서 무정부주의로 선회<sup>6)</sup>하기 이전의 시점까지로 한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전개해나갈 것이다.

첫째, 중국과 한국에 수용된 진화론적 사상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둘째, 중국과 한국의 사회진화론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양계초와 신채호는 사회진화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양국의 애국계몽기에 사회진화론은 어떤 기능을 하였으며 당시의 국가론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넷째, 양계초의 신민설(新民說)은 신채호의 신국민설(新國民說)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위의 여러 질문을 밝히기 위하여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Ⅱ장, 진화론의 정의 및 내용과 서구사상을 수용하게 되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환경을 살펴보았다.

Ⅲ장, 중국과 한국의 진화론 수용 및 전개과정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5) 양계초의 생애를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단계로 구분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좌등진이(佐藤震二)의 견해를 따른다. 이 글에서는 제3단계에 해당하는 新民思想期(1898~1905)로 시기를 한정한다. 본 논문 p19 참고.

6) 신채호는 1910년 중국으로 망명 이후 P.Kropotkin의 무정부주의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석증(李石曾)등 중국무정부주의자들의 모임인 「파리그룹」 멤버들과 유사복(劉師復)등 광둥·상해의 무정부주의자들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IV장, 양계초의 사회진화론 인식을 살펴보는데 1절에서는 양계초의 사상의 형성과 진화론의 수용양상을, 2절에서는 그의 新民說을 파악한다.

V장, 신채호의 양계초의 영향으로서의新民사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VI장에서는 V장까지의 연구결과를 언급하고자 한다.

## II. 진화론 수용의 전제

### 1. 진화론의 정의 및 내용

이론적으로 사회진화론이란 사회과학의 생물학화, 다시말해 생물학적 진화와 사회진화를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라 할 수 있다.<sup>7)</sup> 19세기 중후반부터 세계적으로 풍미하기 시작한 사회진화론은 생존경쟁, 약육강식을 강조하는 그것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지지한다. 또한 제국주의의 요구에 의해서 사회진화론은 우생학<sup>8)</sup>, 인종주의<sup>9)</sup>와 결합함으로써 반이성의 이데올로기로 여겨져왔고, 또 자본주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작용했다.

진화론<sup>10)</sup>은 다윈(C.Darwin;1809~1882)이 「종의 기원」(1859)을 발표함으로써 학

- 
- 7) 조정란, <중국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극복>, 《역사비평》 32, 1992, p325.
- 8) 우생학의 창시자인 프랑시스 갈톤(Francis Galton, 1822-1911)은 그의 저서 「인간능력발달론(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1869)에서 우생학이란 육성을 통해서 인류를 개선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면서, “종족을 더 좋게 개량하는 일은 짝을 잘 짓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우수한 혈통의 종자가 그렇지 못한 종자를 순식간에 도태시키게 될 가능성을 높게 해주는 모든 요소들을 깨닫는 일이 더 중요하다. 특히 인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라고 주장하였다. H. M. Dietl, "Einführung", in *Medizin und Gesellschaft, Eugenik-Entstehung und gesellschaftliche Bedingtheit*, 22, 1884, 1984, s.19. ; 전복희, 앞의 책, p39.
- 9) 사회진화론적 인종주의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 학자들과 저술가들에 의해서 선전되었고 정치적으로도 활성화되었다. 사회진화론적 인종주의는 생물학적 불평등 도그마를 제시하고 백인종을 ‘고가치’의 인종으로 다른 인종들을 ‘저가치’의 인종들로 평가했는데, 이는 인종간의 유전적·생물학적 근거를 모든 물질적이고 정신적 힘과 자질의 준거틀로 이용한 결과였다. 따라서 생물학적으로 ‘고가치’인 인종은 모든 면에서 강하고 유능하고 우월하며, ‘저가치’적 인종은 약하고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리고 세계의 문명화를 단지 고가치적 인종 또는 ‘문화인종(Kulturrasse)’만의 의무로 강조하고 동시에 저가치의 인종의 복종과 억압과 착취를 자연적인 것으로 정당화하였다. 또한 백인종의 제국주의적 욕구를 뒷받침하여 아직 미개발된 지역을 유색인종에게 맡겨놓는 것은 인종과 민족의 자살일 뿐 아니라, 곧 세계적 문화와 문명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Hennig Melber, "Eurozentrisches Zivilisationsmodell", in Otger Autrata, Gerrit Kaschuba, Rudolf Leiprecht & Cornelia Wolf(eds.), *Theorien über Rassismus*, Hamburg, 1990, S.45. ; 전복희, 위의 책, P33.
- 10) 당시 신지식층이 사용하던 진화론이란 말은 서양학문이 동양에 수용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용어로서 이들은 진화론이란 말을 두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첫째, 진화론이란 말은 단순히 진보라든가 발전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지칭하며 변천 또는 역사라는 의미와 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박승근, <世界文明의 來歷을 논함>, 『大韓學會月報』 2호, 1908.3, pp.7-9.). 둘째, 진화론은 선조로부터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자손에게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태나 성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학술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에 진화론이란 용어는 주로 생물계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다(홍병선, <진화론>, 『公道』 2권1호, 1915.1, p30.). ; 박성진, <사회진화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20세기초반 한국지식인들의 논의와 그 성격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12, 1996, pp.180-181 참조.

립되었다. 이 책에서 다윈은 동식물계에는 부단한 생존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우생열패가 이루어진다고 함으로써 자연도태와 진화를 실증하였다. 이는 인간 역사에 대한 신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진화론과 차별성을 가졌으며, 자연과학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단순히 생물학의 이론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철학,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등 그외의 모든 학문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정책과 이데올로기에도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다위니즘은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학문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상의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것은 기독교적 신조에 대한 이단적 이론이라는 반박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입장에 있는 세력들이 나름대로 다위니즘을 수용하여 그를 근거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고 옹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위니즘은 진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보수적으로도 또는 반동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11)</sup>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9-1903)는 다윈의 이론을 사회학에 대입시켜 사회진화론을 주장하였다.<sup>12)</sup> 스펜서는 진화(evolution)가 우주의 모든 생성의 최고 법칙이며 그 일부로서의 사회도 진화하는 것이 첫째의 법칙이라고 하여 사회진화론(doctrine of social evolution)을 주장하였다. 스펜서는 사회진화론의 원동력을 경쟁(competition)이라고 설명했으며, 사회에서 모든 성원들은 生存競爭(competition for existence)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직 最適者만이 살아남게 된다고 하여 適者生存(survival of the fittest)을 강조했다며, 사회에서 知的劣敗者(the inferior intelligence)는 도태되는데 이는 생물계에서의 自然淘汰(natural selection)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13)</sup>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의 핵심인 생존경쟁과 자연도태의 결과로서의 적자생존이론은 당시 영국사회의 탐욕적 개인주의를 정당화시켜주었고, 또 성공을 향한 당시 자본가들의 정력적 추구를 합리화시켜 주

11) 전복희, 앞의 책, pp.6-7.

12) 신용하는 일부에서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다윈(Charles Dawin, 1809-1882)의 학설을 빌려다 사회에 응용한 것이라고 보아 ‘사회다윈주의(Social Dawinism)’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확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먼저 정립하여 발전시킨 것은 스펜서였다고 본다. “스펜서는 1851년에 적자생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그로부터 7년 후인 1859년에 다윈은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을 간행하였다. 다윈은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받았고, 적자생존이란 용어도 빌려다 사용하였다. 다윈은 「종의 기원」이 출판되기 이전부터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칭찬을 표현했으며, 심지어 다윈은 스펜서를 가리켜 나보다 몇배나 나은 선배라고 불렀을 정도였다.…따라서 스펜서를 ‘사회적 다윈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왜냐하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에 대한 어떠한 글도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정립되어 발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신용하, <구한말 한국민족주의와 사회진화론>,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1, 1995, pp.6-7.

13) 신용하, 위의 책, p2.

었다.<sup>14)</sup> 이러한 요소는 19세기 중반 영국의 유력한 사조 즉 재화·생산·분배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급적 최소한도로 줄이고 이기심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방임하자는 자유방임주의자(laissez-faire)들의 입지를 합리화시켜주는 구실을 하였다.<sup>15)</sup> 따라서 그의 사회진화론에서 가장 주목받은 유기체이론도 실은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에 의하면 유기체의 목적은 전체에 있고 세포는 수단에 불과한 것임에 반해 사회에서는 개인이 목적이고 사회는 수단이다. 또 유기체에서는 의식이 전체에 있는데 반해, 사회에서는 의식이 개인에 있다.<sup>16)</sup>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되자 이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헉슬리이다. 그는 자연진화의 원리를 사회에까지 확대시켜 적용하여 해석하려는 스펜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자연법칙(cosmic process)과 윤리법칙(ethic process)의 진화원리는 별개라고 주장하였다. 즉 모든 자연계의 우주과정에서는 생존경쟁을 통한 우생열패의 원칙이 통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이러한 우주과정을 극복하려는 윤리적 진보가 있다고 주장했다.<sup>17)</sup>

헉슬리는 사회진화론의 오류는 가장 적당한 것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이라는 단어 뜻의 모호함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適者’라는 단어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는 ‘도덕적 향취’가 감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헉슬리에 의하면 우주자연에서 무엇이 ‘가장 적당한 것(最適者)’인가는 그 조건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윤리법칙은 자연법칙과는 별개의 것으로 윤리과정의 목적은 최적인 것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가장 훌륭한 것을 살아남게 하는 것이다. 윤리적으로 훌륭한 것, 즉 선과 덕을 실천하는 데는 우주적 생존경쟁에서 이기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과정을 택해야 한다. 무자비한 자기주장 대신에 자기억제(self restraint)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헉슬리는 결론적으로 사회의 윤리적 진보는 자연법칙을 모방하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투쟁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스펜서와 헉슬리는 모두 다윈의 충실한 계승자였지만 진화론을 사회진화론적으로 해석하는 데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sup>18)</sup>

스펜서와 헉슬리의 사회진화론 이후 사회진화론은 많은 추종자를 얻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에 퍼져나갔다. 영국의 벤자민 키드(Benjamin Kidd, 1858-1916), 월터 바조트(Walter Bagehot, 1826-1877),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루드비히 굼플로비츠(Ludwig Gumplowicz, 1838-1909), 오스트리아의 구스타프 라첸호퍼

14) 루이스 A. 코저, 신용하 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일지사, 1992, P193.

15) 조경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엄복·양계초·장병린·노신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5.

16) 조경란, <중국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극복>, p327.

17) 전복희, 앞의 책, p76.

18) 조경란, 앞의 책, pp.327-328.

(Gustav Ratzenhofer, 1842-1904), 러시아의 자크 노비코프(Jacques Novicow, 1849-1912), 이탈리아의 에셀르 로리아(Achille Loria, 1857-1943), 프랑스의 아돌프 코스뜨(Adolphe Coste, 1842-1901), 미국의 윌리엄 G. 쉘너(William Graham Sumner, 1840-1910), 알비온 W. 스몰(Albion W. Small), 게스터 F. 워드(Lester F. WARD, 1841-1913), 프랑클린 H. 기딩스(Franklin H.Giddings, 1855-1931)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진화론을 발전시킨 대표적 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

19) 신용하, 앞의 책, p7.

## 2. 동아시아 국제정치환경과 서구사상 수용의 배경

19세기 중엽 동아시아에서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감에 따라 동아시아 봉건체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그때까지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중화주의적(中華主義的) 세계질서는 와해되기 시작했다. 중화주의적 세계관의 붕괴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가 더 이상 문화적인 예적(禮的)관계에 의해서 지배될 수가 없고, ‘힘의 정치(Power Politics)’의 와중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sup>20)</sup> 즉 이 시기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근거하여 유지되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서구 자본주의의 열강과 거기에 동참하게 된 일본이 동아시아 각국에서 세력권을 확립하기 위해 동아시아 약소국들을 청과의 조공무역에서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중심부-주변부의 구조로 전환시켰다.

19세기중엽-20세기초 동아시아 3국은 서구의 동점에 직면하여 유례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까지 기존의 전통적 사고에 몰입해 있던 지식인들은 본격화된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사고체계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여기에서 새로운 현실인식의 필요성과 대응방식을 모색하게 되었다. 즉, 팽창과정에서 드러난 서구의 위세가 개혁지향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서구사상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주요 동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전통적 역할에 근본적 수정이 가해지는가 하면, 서구식 민족 국가가 신체제의 모델로 수입되고 동시에 다양한 서구사상들이 수입되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 민주주의, 사회진화론 등이 그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사회진화론이 서구의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국가간 경쟁과 국민통합의 사상적 원리로 급속히 그리고 널리 수용되었다.<sup>21)</sup>

그러나 다양한 서구사상의 수용이 국가의식을 자극했다고 해서 유입의 성격이 일방통행적인 것은 아니었다. 1890년대 이후 대내외적 위기의 제도화로 기존체제와 유교의 가치가 절하되었어도, 유교는 여전히 통치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개혁의 필요를 좇아 서구사상을 수용하는 경우 유교의 성격에 관한 재평가가 요구됐고, 다른 한편으로 유교가 통치사상으로 잔존하여 기존체제를 규율하고 있는 한 서구사상은 유교와 공존 가능하도록 변용되어야만 했다. 즉, 서구사상의 해석과 도입은 유교적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내적 모순의 심화, 유교적 가치체계의 해체 그리고 서구 세력의 동점 등의 상황의 절박성이 사회진화론의 수용을 재촉한 점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드

20) 전복희, 앞의 책, pp97-98.

21) 신연재, <구한말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그 영향 - 신채호의 국가사상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6권 제2호, 1996, p139.



러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서구의 충격과 그것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 특히 지배집단의 대응방식에 따라 서구문명의 수용형태는 한·중·일 3국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각국 내부에서 유교의 위치, 내부적 개혁기반 구축, 개국의 성격, 그리고 지배집단의 개혁지향성 정도가 반영된 결과였다.<sup>22)</sup>

특히 한·중·일 3국중 일본은 국제정치질서에서 한·중과는 상이한 국제환경 아래 놓여 있었다. 유교적 국제질서의 유지와 서구의 압력 사이에서 고민하던 한·중과는 달리 일본은 서구의 압력에만 대응하면 되었다. 또한 일본은 유교문명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게 되어 서구의 위협이 중국에 가해진 것보다 완만하고 소폭적인 것이었음에도 가장 먼저 위기의식을 느끼고 민감한 대응을 보인다. 그 조속한 위기의식과 민감한 대응은 유교권 국제질서로부터의 신속한 이탈과 서구적 국제질서로의 급속한 편입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sup>23)</sup>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경우 유교가 거듭된 서구의 압력과 내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는가 하면, 권력과의 합치를 바탕으로 대내적으로 통치사상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저항사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유교가 강력한 형태로 잔존하는 가운데 서구문명을 선별적으로 수용한 차이를 보여준다.<sup>24)</sup>

위와 같은 이유로 중국과 한국에 수용된 서구사상은 일본과 비교해볼 때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특히 한국에 수용된 서구사상은 중국의 여과를 거친 간접수용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은 인정하더라도 사상의 내용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사회진화론이 어떻게 수용되고 전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22)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를 중심으로>, p49.

23) 신연재, 위의 책, p43.

24) 신연재, 위의 책, pp.47-51 참고.

### Ⅲ. 한, 중의 진화론 수용 및 전개과정

#### 1. 중국에서의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

19세기 중후반부터 세계적으로 풍미하기 시작한 사회진화론은 일반적으로 우생학, 인종차별주의, 제국주의를 합리화해주는 반이성의 이데올로기로 여겨져 왔고, 또 자본주의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사회진화론은 현실 인식의 이론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갔다. 즉 제국주의의 침략, 이민족의 지배라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지식인 각자의 지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즉 청조의 위기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중화민족의 위기로 받아들이나에 따라 사회진화론에 대한 인식이 달리 나타났다.<sup>25)</sup>

이와 같은 이해 위에서 진화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기존의 시기구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1차 무술유신시기, 제2차 혁명파와 입헌파 병존시기, 제3차 신문화운동시기로 구분되어 진화론의 성격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sup>26)</sup> 이를 다시 진화론에 대한 당시 지식인들의 인식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 진화론을 수용한 시기(1873-1898)로 이를 주도했던 인물로는 강유위(康有爲)·엄복(嚴復)·담사동(譚嗣同) 등이며, 둘째, 진화론을 신봉한 시기(1898-1905)로 이에 속하는 인물로는 손문(孫文)·장병린(章炳麟)·양계초(梁啓超) 등이고, 셋째, 진화론의 극복이 모색되었던 시기(1905-1919)로 여기에는 신문화운동의 기수였던 진독수·이대조·노신 등이 속한다고 본다.

조경란은 이와 같은 시기구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진화론 인식을 시기와 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째, 사회진화론을 소개하여 당시 중국의 분열의 상황을 지식인들에게 국가의 위기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원리를 국제관계에 적용해야 함을 주장하여 진화론의 대중화에 힘쓴 시기(1895-1905), 여기에 속하는 사상가로는 엄복·양계초를 들수 있고, 둘째, 진화론의 사회진화론적 수용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그것을 민족문제와 연결시키고 또 국가로부터 인민을 분리하고 인민에게서 중국역사의 미래지향을 보려했던 시기(1906-1911), 이 시기 사상가로는 장병린·노신을 들수 있으며, 셋째, 진화론을 중국사회변혁의 근본문제라 할 수 있는 인민의 주체성과 관련하여 인민 그 자체를 인정하고 인민 총체로서의 대중을 발견해가는 시기(1912-1919)로 여기에는 이대조가 속한다.<sup>27)</sup>

25) 조경란, <중국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극복>, p325.

26) 중국의 진화론 사상에 대한 시기 구분은 최근의 연구들까지도 주로 伊藤秀一의 이러한 시기구분에 의존한다. 伊藤秀一, <進化論と中國の近代思想>, 《歴史論評》125,126, 1960.

본 논문에서는 진화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시기구분을 기존의 논의에 따른다.

중국에서 진화론의 도입은 엄복의 「천연론(天演論)」(1898)에서 비롯되었다. 엄복의 진화론 소개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청일전쟁의 패배였다. 여전히 중화주의적 세계관에 빠져있던 당시의 중국인들에게 청일전쟁은 그 어느 사건보다도 큰 충격이었다. 이제 중국인들에게 ‘보종(保種)’과 ‘보국(保國)’은 매우 긴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후 중국의 개혁운동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60년대부터 ‘부강’을 목표로 활발히 전개되던 ‘양무운동’은 대만사건, 청불전쟁, 청일전쟁 등에서의 청의 굴욕적 타협 내지 패배로 군사기술 수용위주의 개혁운동의 한계를 드러내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그러자 1890년 중반부터 서구적 정치제도의 도입, 즉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는 ‘변법운동(變法運動)’이 중국의 자강운동의 후반단계로서 전개되기 시작했다.<sup>28)</sup> 진보적 지식인들은 저술활동을 통하여 변법운동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였다. 사회진화론은 이러한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을 설명하여 중국의 몰락원인과 중국의 구출을 위한 앞으로의 행동의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실천으로 이끄는 하나의 이론적·철학적 근거를 제공하였다.<sup>29)</sup> 「천연론(天演論)」은 엄복(1853-1921)이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를 중심으로 하고 스펜서의 학설을 보충하였으며, 〈복안(復案)〉이라는 꼭지를 달아 자신의 의견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은 것으로, 곧 중국 청년들의 애독서가 되었다.

헉슬리는 「진화와 윤리(Evolution and Ethics)」에서 ‘우주과정(the cosmos process)’과 ‘윤리과정(the ethical process)’을 구분하면서, 모든 자연계의 우주과정에서는 생존경쟁을 통한 優勝劣敗의 원칙이 통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이러한 우주과정을 극복하려는 윤리적 진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스펜서가 인간사회에 자연의 법칙을 적용하고 사회와 자연을 유추하는 것과 그의 ‘광적인 개인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엄복은 이와는 반대로 「천연론」에서 스펜서의 이론을 근거로 헉슬리의 이론을 비판하였다.<sup>30)</sup> 그러나 이것은 결코 엄복이 헉슬리의 이론 전

27) 조경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pp.5-9.

28) 윤혜영, 「변법운동과 입헌운동」,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중국사VI』, 지식산업사, 1989, p7.

29) 전복희, 앞의 책, p74.

30) “헉슬리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굳이 그가 헉슬리의 책을 번역한 이유에 관해서는 Schwartz의 견해가 널리 인용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선 헉슬리가 본의 아니게 다윈의 진화론과 자연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것이 첫째 이유라고 한다. 또 다른 이유로는, 헉슬리가 우주의 진화보다 인간의 고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사상사를 두루 섭렵했던 데다가, 그 일환으로 진화론을 다루면서 상이한 문화들이 표출하는 악과 고난에 대한 태도가 진화과정의 부산물임을 밝혔다는 것이다. 엄복이 그러한 헉슬리를 통해 지성사와 인류의 범문화적 통합에 관한 감각을 광범위하게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 둘째 이유였다. 그런데 그는 우주의 과정(cosmic process)-자연의 과정-과 윤리의 과정(ethical

체를 부정하고자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엄복은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는 자강과 인종의 유지를 위한 수단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고, 이 책의 번역은 중국을 위해 의미있다고 생각했다.<sup>31)</sup>

엄복은 「천연론」 외에도 서구 사상가들-밀(Mill), 몽테스키에(Montesquieu), 루소(Rousseau), 스미스(Smith) 등-의 저술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주요 개념을 중국 고전의 용어를 빌어 번역했다.<sup>32)</sup> 예를 들어 그는 헉슬리의 self-assertion을 自營으로 self-restraint를 克己로 번역했으며, 스펜서의 unknowable을 不可思議로, sciology를 群學으로, struggle for existence를 物競天擇으로 그리고 survival of the fittest를 優勝劣敗로 그리고 evolution을 天演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용어 사용에서 전통사상에 의한 서구사상의 제약을 읽을 수 있으려니와 이를 두고 Schwartz는, 그가 처음부터 대중이 아닌 지식인만을 독자층으로 상정한 탓이라고 설명한다. 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던 간에 「천연론」은 청말의 지식인과 청년들에게 폭발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정도로 청말의 중국 사상계에 신지평을 열어주었다.

진화론의 수용에 기여한 자가 엄복이라면, 그것의 전파과정에 그보다 더 크게 기여한 이가 양계초였다. 그는 엄복이 「천연론」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천연론」의 抄錄을 읽고(1897)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다. 양계초의 진화론은 대체로 강유위의 공양삼세설<sup>33)</sup>, 다윈과 엄복의 진화론, 루소의 천부인권설, 그리고 벤자민 키드(Benjamin Kidd;1858-1916)의 사회진화론이 임의적으로 결합되어 형성되었다. 또 진화론의 전개에서는 많은 부분 블룬츨리(Bluntschili;1808-1881)에 의지하였다.<sup>34)</sup>

---

process)-사회의 과정-을 구분하는 헉슬리에 반대하고 스펜서를 지지했었다. 따라서 「천연론」은 헉슬리의 소론을 의역하되 그에 대항하여 스펜서의 중심사상을 설명하려는 것이었다고 Schwartz는 평가한다.” 嚴復, “天演論自書”, 王栻主 編, 「中國近代人物文集叢書-嚴復集」, 第五冊, 中華書局, pp.1319-1321. ; Schwartz, Benjamin I.,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 Yen Fu and the Wes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83, pp.101-103. ;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에 관한 연구-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를 중심으로>, p60.

31) 전복희, 앞의 책, pp.76-77.

32) 신연재, 앞의 책, p61.

33) 강유위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과 『예기(禮記)』 「예운(禮運)」편에 근거하여 역사의 발전을 거란세(據亂世), 승평세(升平世), 태평세(太平世)로 나누어 거란은 군주전제의 세이며 승평은 입헌군주제로 군민(군민)의 권리가 규정된 세상임과 동시에 소강상태에 해당되며, 태평은 민주적이며 평등한 대동의 세상이라고 하였다. 양계초는 이러한 전통적인 삼세설을 기반으로 하여 엄복의 진화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변법의 필연성을 기초지으려 했다. 허도학, 「중국 근대화 기수 梁啓超」, 임방서원, 2000, pp.197-200. ; 조경란, <중국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극복>, p330.

34) 양계초의 국가사상은 블룬츨리의 국가유기체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블룬츨리의 국가유기체설은 두 개의 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국가인격체(die Staatspersonlichkeit)의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가주권(die Staatssouveranitat)의 개

양계초는 「時務報」 창간호의 〈變法通義〉 서문에서 변화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촉구한 이후<sup>35)</sup>, 「시무보」를 통해 사회진화론을 전파해 나갔다. 그는 「시무보」 26호에서 군(群)-집단-이 인간 존재의 필수조건임을 내세워 인간생활에서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집단이 진화적 생존경쟁의 기본단위이며 변화는 집단 생존의 기본 수단이라는 이해에 따라, 중국의 의식적이며 적극적인 자기변화를 주장한다. 이 시기 그는 외국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은 強과 弱, 생존과 절멸의 기반을 이해함으로써 생존의 비밀을 역사에서 발굴하는 것이라고 하여,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새로운 역사사상을 제시한다.<sup>36)</sup>

변법운동(1898) 실패 후 양계초는 일본망명을 통해 그의 정치사상을 더욱 급진화시킨다.<sup>37)</sup> 그는 서서히 강유위의 대동론적 진보론과 유교적 사고에서 벗어나, 일본에 수용되어 발전된 일본의 사회진화론과 서구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양계초는 변법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민의 노예성에서 기인한다고 여겨 民智 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민지의 상태는 민이 部民<sup>38)</sup>이나 國民이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데, 중국사회 후진성의 원인을 부민의 상태에 두었다. 제국주의 시대에 국민이 창출되지 않는 한 독립을 보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양계초 계몽사상의 절정이라 불리는 ‘新民說’도 부민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창출할 것인가, 노예성에 지배받고 있는 민이 어떻게 자치능력을 환기시키고 국가사상을 양성할 것인가에 주목한 것이다. 거기에서 양계초는 국가의 혁신은 인민의 각성에 의한 자치, 자존, 단결(合群), 공덕<sup>39)</sup> 등에 의해 성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sup>40)</sup>

---

넘이다. 국가인격체와 국가주권의 주장은 독일의 19세기의 정치적 배경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서는 19세기 중반에 진보세력과 보수세력간에 주권의 소속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격론이 일었다. 진보세력은 국민주권설을, 보수세력은 제후군주설 내지는 군주주권설을 주장하였는데 블룬츨리의 국가유기체설은 이러한 두 정치세력들의 격론에서 학문적으로 타협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블룬츨리는 국가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절대군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무제한적인 요구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전복희, 앞의 책, p89.

35) 梁啓超, 〈變法通義〉, 「飲水室文集」 1.

36) 신연재, 앞의 책, p62.

37) 일본망명후 1903년 중반(양계초의 진보적 사상이 상대적으로 보수화되어 가는 시기)전까지 그는 자주 ‘혁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는 “혁명은 진화의 세계의 피할수 없는 법칙이다”라고 주장하고 정치적·인종적·도덕적 혁명을 주장하였다. Pusey, James Reeve, China and Charles Dawin, Cambridge:Harvard Univ. Press/London, 1983, p207. : 전복희, 앞의 책, pp.83-84.

38) 양계초는 部民과 國民의 차이를 자치능력으로 보았다. 〈論國家思想〉에서 “人群의 初級, 部民(tribe) 있으나 國民이 없다. 部民이 발전하여 國民이 된다. 이것이 문명과 야만이 나누어지는 所以이다. 部民과 國民이 다른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群族이 되어 스스로 風俗을 이루는 것 이것이 部民이다. 국가사상에 있어서 능히 스스로 정치를 펴는 자 이것을 國民이라 한다. 천하에 아직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이를 수 없다.”

39) 양계초는 公德은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도덕이 아니라 群의 이해를 위해 개인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도덕을 의미하며, 私德은 안전하고 강한 국가의 창조를 위한 국민의 스스

양계초의 정치적 입장은 1903년을 전후하여 보수적 변화를 보이게 된다. 美洲 여행 후 그는 중국인민이 공화정에 적응할 준비가 안되어 있으며, 진화의 과정은 점진적인 것이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다시 혁명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가 「新民叢報」(1902.1)를 통해 혁명과의 「民報」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입헌군주제 내지는 開明專制君主制를 주장함으로써 진화론적 국가사상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기에 이른다.<sup>41)</sup>

개혁파와 혁명파가 사회진화론을 앞세워 각각 개혁과 혁명을 합리화한 것에서 보듯이, 1903-1904년間に 이르면 진화론은 ‘근대화의 종교’로서 엘리트 문화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01년 이후 중국 정부가 방향을 수정하여 개혁작업에 착수하고, 1905년 이후 개혁에 관한 합의가 굳어지면서 점진주의적 성향의 개혁파는 점차 세력을 잃게 된다. 더구나 1911년의 혁명과정에서 지식인의 무기력이 노출됨으로써 진화론적 국가사상은 더욱 타격을 받게 된다.<sup>42)</sup>

---

로의 자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전복희, 앞의 책, p85.

40) 조경란, 앞의 책, p331.

41) 신연재, 앞의 책, p63.

42) 신연재, 앞의 책, pp.63-64.

## 2. 한국에서의 진화론의 수용과 전개과정

19세기 후반 조선은 내적 모순에 대하여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입을, 외적 충격에 대하여 국가의 부강을 요구받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sup>43)</sup>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조선은 결국은 1896년 일본의 무력적 강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開國을 해야만 했고, 일본과 첫 번째 조약을 체결했다. 개국과 함께 조선사회는 정치적·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전통적 유교는 달라진 사회정치와 경제적 관계를 더 이상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없었다. 또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계기로 조선은 더 이상 대외관계를 중국과의 사대관계에 의존할 수 없었고 스스로 중화주의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사회에 적응해야만 했다.<sup>44)</sup>

이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진보적 세력들은 개혁을 지향하는 개화사상을 형성하여 개혁운동을 통한 국가의 독립과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개화사상은 실학의 실용적 사고와 청국의 공양학파의 개혁사상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전래된 서구의 문화와 기술에 의해서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sup>45)</sup>

개화파는 통치질서의 문란과 부국강병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가 아닌 사상의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자주독립의 수호와 회복을 가능하게 해 줄 모델을 서구에서 구했다. 현재의 열등성의 원인과 미래의 극복책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준 것이 바로 사회진화론이었다. 그것은 현재의 열등성이 생존경쟁에 대비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진화적 생존경쟁의 과정에는 진보의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위안을 안겨다주는 것이었다.<sup>46)</sup>

한국의 사회진화론 수용<sup>47)</sup>은 중국을 통한 경로와 일본을 통한 경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학·선교사와의 접촉·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하여 한말의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접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1860년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1880년까지는 주로 일본인의 번역 또는 저서가 정보원이 되었다. 간헐적으로 유입되던 사회진화론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선보인 것은 189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에 중국을 통해서였다. 엄복의 「천연론」은 중국에서 영향이 컸던 만큼 우리 나라에도 들어

43) 신연재, <구한말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그 영향>, p139.

44) 전복희, 앞의 책, pp.99-100.

45) 金榮作, 「韓末ナシヨナリズムの研究」,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75, p76. ; 전복희, 앞의 책, p101.

46) 신연재, 앞의 책, p142.

47) 구한말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회진화론은 허버트 스펜서, 찰스 다윈, 벤자민 키드의 사회진화론이었다. 신일철, 「申采浩의 자강론적 역사상」, 『한국사상』 제10집, 1972.

왔으리라 생각되지만,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은 양계초의 「飲水室文集」이었다. 단, 양계초의 사상형성에 加藤弘之(가등홍지)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일본과 중국을 통해 전래된 사회진화론이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에 사회진화론을 최초로 한국에 도입하여 진화론적 사상을 기록에 남긴 것은 1882년경에 「競爭論」을 쓴 유길준(1856-1914)이었다.<sup>48)</sup> 유길준은 「西遊見聞」에서 세계의 생물학자로서 훔볼트, 퀴비에, 혁슬리, 에드워드 모오스, 하이에트 등 다섯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sup>49)</sup> 진화론에 반대한 퀴비에와 혁슬리를 한꺼번에 소개하면서 다윈은 소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다윈을 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통한 진보’라는 다윈주의적 진화의 관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sup>50)</sup>에서, 유길준이 중역(重譯)이 거듭된 변형된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다윈이 직접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만큼 스펜서도 간접적인 중역(重譯)을 거듭하여 수용되었다.<sup>51)</sup>

대한제국 말기의 대부분의 국제관계나 사회발전에 대한 문건들이 스펜서류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학술논문의 형태로 진화론을 소개하는 글에는 스펜서를 직접 지명하고 있는 예는 극히 드물고 라마르크나 다윈의 학설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학술논문에는 생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이, 지식인층의 담론으로서의 스펜서류의 사회진화론이 주로 수용되었지만 그 수용은 어디까지나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걸러진 간접적인 수용에 국한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다윈의 이론은 1890년대 중엽이 되면서 천천히 일반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조선에 수용됨에 있어서 처음부터 부국강병이라는 국가의 정치·사회적 목표와 연관되어 수용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사회진화론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양계초의 사회진화론은 지성계 및 개혁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양계초의 많은 저작들이 각종 신문과 학보에 소개되는데, 그의 「飲水室文集」은 한말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탐독하였다.<sup>52)</sup> 열강의 침략하에서 신음하는 중국을 구제하고

48)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世林韓國學論叢』 제1집, 1977. ; 신용하, 앞의 책, p7.

49) 전용재, 「찰스 다윈」, 민음사, 1998, p188.

50) “大凡 人生의 萬事가 競爭을 依持하지 아니한 者가 업스니 大한 則 天下國家의 事로부터 小한 則 一身一家의 事에 이르히 悉皆 競爭을 因하여 始能進歩하는 者이라. 萬一 人生이 競爭하는 바가 업스면 何物로써 其知德과 幸福을 崇進함을 得하며 國家가 競爭하는 바가 업스면.....”

51) 박성진, 앞의 책, p184.

52) 『飲水室文集』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멸망해가는 한국에 대한 양계초의 평론으로서 「朝鮮亡國史略」과 「朝鮮之日本」이 수록되어 있어 한말 한국지식인들이 더



개혁하기 위해 쓴 양계초의 평론들은 일제의 침략하에서 신음하며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좋은 참고가 되었다.<sup>53)</sup>

양계초의 영향은 신채호와 박은식에게도 파급되었는데 특히 신채호의 경우 그의 국가사상은 이 점에 주목하여 양자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sup>54)</sup>

첫째, 역사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한 점, 둘째,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강조하되 전자로 후자에 대항한 점, 셋째, 優勝劣敗·適者生存의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점, 넷째, 민족사관을 강조한 점, 다섯째, 노예성 및 사대사상을 배격하고 주체성을 역설한 점 등이다. 이에 근거하여 신채호는 박은식과 함께 근대 사학을 정립한 사학자로 평가되고, 박은식이 유교적 기초 위에서 근대사회의 형성을 촉구했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사회진화론은 1890년대에는 약자에서 강자로 탈바꿈하기 위한 ‘自強運動’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고, 1900년대에는 쇠락해가는 주권을 되살리기 위한 국권회복운동, 그중에서도 계몽운동의 근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1905년부터 1910년의 시기를 애국계몽기라고 한다. 한국의 계몽운동은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위기 의식 아래 외국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근대화의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것은 처음부터 부국강병한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목표와 연관되어 있었다. 사회진화론은 한국의 계몽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많은 계몽가들은 사회진화론에서 그들이 희망하는 사회상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발견하였다. 즉 그들은 사회진화론을 빌어서 서구가 문명화될 수 있었던 근원과 한국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국가의 독립을 위한 행동방안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계몽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상호부조의 시대가 도래했다”<sup>55)</sup>는 기대와 함께 사회진화론에 대한 언급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

육 이 책을 정독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飲水室文集』上卷 「時局編」, pp.104-114 참고 ; 신용하, 앞의 책, p11.

53) 신용하, 앞의 책, p10.

54) 한무희, 「단체와 임공의 문학과 사상」, 예그린출판사, 1977, pp.5-9. ; 신연재, 앞의 논문, p145.

55) 많은 논자들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국제연맹결성, 러시아 혁명 등을 개조시대 도래의 구체적 예로서 거론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사상적으로 버트란드 러셀의 「사회개혁의 원리」(1916)가 출판되어 한때 소위 평화·정의·인도의 가치개념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다. 일본을 통하여 소개되고 있던 러셀의 이 책은 「독립신문」(1919부터)과 일역본 「社會改造の原理」(1919)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박성진, 앞의 책, p187.

것이 사회진화론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어서 3·1운동 실패의 여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조선문제에 대해 보인 무관심에 대한 실망 등으로 인해 다시 사회진화론은 득세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의 사회진화론은 독자적 발전 없이 일본의 사회진화론의 영향 아래 들어가 이광수의 「民族改造論」<sup>56)</sup>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친일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신채호가 민족주의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진화론에서 출발하여 고유한 반제국주의 사상을 정립한 것 정도를 예외적으로 꼽을 수 있을 뿐이다.

---

56) 이광수의 논문으로 1922년 『개벽』에 발표된 것이다. ‘민족의 생활진로의 방향전환, 즉 그 목적과 계획의 근본적이요, 조직적인 변경’이라는 민족개조의 의의, 역사상으로 본 민족개조운동 등을 밝히고, 우리 민족 쇠퇴의 근본원인이 허위, 비사회적 이기심, 나태, 사회성의 결핍 등 도덕적인 이유에 있으며, 이것의 개조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 민족의 장점은 仁과 義, 禮와 勇임을 말하고 민족성의 단점을 조직적, 교육적으로 개조하는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 글은 그의 민족관·문학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IV. 梁啓超의 사회진화론 인식

### 1. 사상의 형성과 사회진화론의 수용

梁啓超(1873-1929)는 중국 남부의 廣東 新會에서 출생하였으며, 자는 卓如, 호는 任公이다.<sup>57)</sup> 유소년시기의 그는 詞章學, 팔고문, 考證學 등 전통 유교가 그의 세계관을 지배하였으나, 1890년 강유위의 문하로 들어감으로써 공양학의 경제사상과 서구 학문을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토대로 청일전쟁 이후 변법운동에 매진하게 된다.<sup>58)</sup> 그는 근대시기 중국에 서양사상을 소개하였으며 신교육에 있어서 최대 공헌자이자, 당시 한국의 사상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계초의 생애는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단계로 구분한다. 王介平(1957)은 ①강유위문하 학습시기부터 무술정변기까지(從學康有爲到戊戌政變 1890-1898) ②일본망명이후부터 혁명파와의 논전까지(從逃日本到今革命派論戰 1898-1905) ③논전실패부터 신해혁명까지(從論戰失敗到辛亥革命 1906-1911) ④신해혁명부터 1차대혁명이후 사망까지(從辛亥革命回國第一次大革命後之死 1912-1929)로 4분하였는데, 일본에서의 망명생활 중 그의 언론의 변화로 구분한 것이 특색이다.

일본의 학자중에서 좌등진이(佐藤震二)는 사상활동면에서 5분하였는데, ①變法思想期(1896-1898) ②新民思想期(1898-1905) ③排滿革命派와의 思想抗爭期(1906-1911) ④政界活躍期(1912-1919) ⑤晩年 學術著作期(1920-1929)이다.

모이형(毛以亨;1957)은 일반적 견해로 분류하였는데, ①소년독서시기(1873-1894) ②유신운동시기(1894-1898) ③일본도피 언론활동시기(1898-1911) ④중화민국 초기의 정치활동시기(1912-1919) ⑤만년의 문화운동시기(1919-1929)이다.<sup>59)</sup>

1870년 이후 청조는 가속화된 열강의 침략으로 인해 변경지역을 상실하게 되었고, 국내적 위기도 점차 심화되었다. 또한 청일전쟁의 패배에 따라 중국은 1895년 하관조약의 체결을 강요당하였으며 이를 경계로 중국의 반식민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패전에 의해 촉발된 민족적 위기의 자각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변법운동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강유위, 양계초 등은 현 체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sup>60)</sup>

57) 徐梁伯, 「中華近代愛國主義精神通覽」, 東南大學出版社, 1999, p397.

58) 신연재, 앞의 책, p113.

59) 黃種東, 〈양계초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2, p8 : 구자역, 「양계초와 교육」, 원미사, 1998, p.p9-10 : 모이형, 「양계초」, 명문당, 1990.

강유위는 공양학을 비롯한 유교 제 학파의 사상을 종합하여 제설통합주의적 관점에서 〈大同三世說〉과 〈改制〉를 주장하였다. 이 시기에 수용된 서구사상은 강유위의 개혁사상에도 영향을 주어, 경쟁적 제문명과 동태적 제 국가의 존재를 환기시켜 중화주의를 붕괴시키는가 하면 다원적 세계관을 형성케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동삼세설에 진화적 진보관념을 불어넣었다.<sup>61)</sup>

양계초는 이러한 전통적인 삼세설을 기반으로 하여 엄복의 진화론을 받아들임으로써 변법의 필요성을 기초지우려 했다. 사실 변법운동을 지탱해준 이론도 공양학과 결합된 대동사상과 서양에서 수입한 진화론이었다. 양계초는 『춘추』 장삼세(張三世)의 뜻에 비추어서 다군(多君)이 정치하는 세상, 일군(一君)이 정치하는 세상, 민이 정치하는 세상의 삼세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삼세의 법칙에 “그 세에 미치지 못하면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이미 그 세에 이르렀으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단서를 붙이는데 이는 양계초가 진화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비약이 아닌 점진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sup>62)</sup> 양계초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정치의 진화과정에 적용시켰다. 즉 민정(民政)이 되면 다시 군정(君政)이 되는 예는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지구운행은 민정이 행해지는 태평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대세인데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여 중국의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sup>63)</sup>

양계초는 중국은 자연의 법칙상 불가피하게 변화될 것이며, 또 변화되어야만 하며 변화하는 것은 천하의 공리(公理)로 스스로 변화하지 않아도 변화하도록 되어있는데, 만일 중국이 스스로 변화하면 권리를 가지고 保國, 保種, 保教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타국에 의해서 변화되어 그들에 의해서 속박되고 부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法은 천하의 公器이며 변화는 천하의 公理이다.....천지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세계는 변화로 형성되는 것이다.....변하는 것은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도 변한다.....중국이 변화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보국, 보종, 보교가 가능하지만 주도권이 외국에 이양될 경우 중국은 속박당하는 것이다.”<sup>64)</sup>

이 점에서 그의 개혁사상에 사회진화론이 침투한 흔적을 읽을 수 있으려니와, 이를 바탕으로 그는 민권설, 육해군 창설, 철도 부설, 상공업 육성, 농업 개량 등 전면적 변법을 통해 국가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sup>65)</sup>

60) 구자억, 앞의 책, p.p. 54-55.

61) 신연재, 앞의 논문, p.p.115-116.

62) 조경란, 〈진화론의 중국적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p.p.73-74.

63) “而國已有民政，而旋復退而爲君政，此於公理不順”，梁啓超，「論君政民政相嬗之理」，『文集』1冊 2卷，1897，p10.

64) 〈變法通義〉，『文集』1，p.p.7-8.

그는 중국의 변화의 필요성, 바꾸어 말하면 개혁의 필요성을 정치적 필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의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중국이 자연의 법칙인 ‘우승열패’의 원칙을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임하지 않으면 다른 세력자들에게 멸망되어 국가와 인종과 종교는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sup>66)</sup>

1898년 무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sup>67)</sup> 양계초는 일본망명을 통해 중국변혁에 관해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좀더 자유로운 환경적 조건을 접할 수 있었다. 그는 서구사상의 일역서를 탐독하되 서구사상의 일본적 변용을 자신의 사상체계에 맞추어 개조 수용한다. 다양한 서구사상을 섭취한 결과 그는 서서히 강유위의 대동론적 진보론과 유교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고, 1901-1902년을 전후하여 완전히 대동사상을 부정하고 독자적 사상을 펼쳐나가게 된다. 이미 엄복의 「천연론」 초고를 접한 이래(1907년)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던 그는 망명이후에는 일본의 사회진화론<sup>68)</sup>과 서구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새로운 사상적 영향을 받은 그는 정열적인 저술활동을 통해 사회진화론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新民說〉을 제창하고 「청의보(淸議報)」 및 「신민총보(新民總報)」의 지면을 빌어 혁명파와의 논쟁을 활발히 전개하는가 하면, 전통사상으로부터의 탈피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상의 변화를 자초한다.<sup>69)</sup> 이 결과 기왕의 제설통합적 경향이 강화되었음은 물론이고 진화론적 시각에서 정립한 新民說에는 加藤弘之의 영향이 짙게 반영된다.<sup>70)</sup>

65) 汪榮祖, 「晚淸變法思想分析論」, 『晚淸變法思想論叢』, 臺北, 1983, p.p.19-20 ; 신연재, 앞의 논문, p116.

66) 전복희, 앞의 책, p82.

67) 변법파의 공자개체적 개혁이론이라든가 의회제적 지향에서 파생된 민권, 평등론 등이 수구파에 의해 확대해석되어 백일 개혁기 이전부터 이미 개혁운동에 대한 광범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소지가 있었다. 서태후를 정점으로 한 수구파 집권당국의 역쿠데타로 개혁조치를 원상복구함으로써 개혁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윤혜영, 「변법운동과 입헌운동」 『강좌중국사VI』, p.p.27-29 참고.

68) 加藤弘之(1836~1916)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사회진화론은 근대 자연법사상에 대한 배격의 논리로 수용되어 발전되었고, 일본의 정치적 상황의 보수화와 함께 보수적 정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그리고 아직 근대 자연법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던 일본에서 사회진화론의 수용은 국가유기체설과의 결합을 통하여 대내적으로는 천황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인 국민의 통합을 강요하고 국가주의를 지지하며 대외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해 주는 이데올로기로 발전하였다. 전복희, 앞의 책, p.p. 72~73.

69) 양계초는 일본에 온후 1902년 1월 청의보의 뒤를 이어 신민총보를 창간하고, 입헌민주주의를 기초로 하여 중국민중의 자각을 호소하는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신민총보는 “의화단의 난”이후로 일본에 와있는 약 2만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의 호응과 지지로 상해, 홍콩 등지에서도 자유로이 복사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당시 매 기의 발행부수가 8~9만부에 달하여 그 명성이 시무보 때보다 10배는 되었다. 王壽南 編, 「梁啓超」, 臺灣商務印書館, 1979, p6071. ; 구자역, 「양계초와 교육」, 원미사, 1998, p19.

70) 양계초는 여러 글에서 가등홍지의 사회진화론적인 기본 테제를 인용하며, 가등홍지를 진화론에 몰두하고 있으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도덕과 법의 기준으로 믿는 참된 지도자로 소개하였다. 가등홍지는 이기심 또는 ‘자기주장’을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의 모든

양계초의 新民說은 근대적 국민의 기초로서 민권의 가치를 환기시켜 민족국가로의 전환을 기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었다.<sup>71)</sup>

양계초가 新民說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신민총보』가 표방한 ‘공덕’과 ‘국가사상’의 계몽이었다. 그는 중국에 국가사상이 결여된 원인에 대해서 ①천하 있음을 알면서 국가 있음을 모르고 ②一己 있음을 알면서 국가 있음을 모른다<sup>72)</sup>는 두가지 요인을 든다.

양계초는 그의 新民說 중의 〈論國家思想〉에서

“人群의 初級, 部民(tribe) 있으나 國民이 없다. 部民이 발전하여 國民이 된다. 이것이 문명과 야만이 나누어지는 所以이다. 部民과 國民이 다른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群族이 되어 스스로 風俗을 이루는 것 이것이 部民이다. 국가사상에 있어서 능히 스스로 정치를 펴는 자 이것을 國民이라 한다. 천하에 아직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이룰 수 없다.”<sup>73)</sup>

양계초 사상에 있어서 중화주의적 천하질서가 부정됨에 따라서 천하가 아닌 ‘세계속의 한 나라’로서 민족국가의 인식에 기초하여 ‘국민의 창출’이 新民說의 기본주제가 되었고, 그 신민의 형성을 위해 ‘국가사상’의 새로운 계몽이 긴요하게 되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문명관 속에는 천하의 관념이나 ‘國’이나 ‘家’의 관념도 있었으나 국가평등관에 입각한 세계의 열국 중의 일국으로서의 ‘국가관념’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사상’의 창출은 어떻게 가능한가. 양계초에 의하면 중국적 후진성은 중국사회가 아직 ‘部民’상태에 있으며 혈연적·지연적 유대에 따르고 인간의 군거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체를 이루지만 그것은 아직 풍속이 스스로 이룩되어 관습이 사회를 지배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부민상태는 전통과 인습에 매몰된 자연의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은 스스로 정치능력을 가진 존재이고 국민들의 통합원리는 단체적 결합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

---

행동의 동기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지와 발전이 사회유기체에 있어서 기본 충동이고 목표라고 하였다. 그는 도덕이 자연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도덕과 권리는 무엇보다도 단지 사회유기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유용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적 도덕보다 사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도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역시 군을 위한 유용성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양계초의 관점에서 발견된다. 전복희, 앞의 책, p.p.85~86; 신연재, 앞의 논문, p.p.119-120 참고.

71) 신연재, 앞의 논문, p.p.134-135.

72) 〈新民說〉, 《飲氷室合集》卷3, p.21.

73) 梁啓超, 〈論國家思想〉, 新民說, 前掲書 所收.

적 결합의 윤리, 즉 신민의 윤리가 다름 아닌 ‘공덕(公德)’이었다. 「吾民의 유신」을 제창한 양계초의 新民說은 부민으로부터 국민을 창출기 위해 ‘散沙’와 같이 분산된 민중을 ‘공덕’에 의해 결합하여 이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민총보』에 나타난 양계초의 사상구조는 루소의 민약설에 나타난 공화주의와 결별하고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국민의 창출이나 국가사상의 형성에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를 블룬첼리의 국가학에 의해 비판했다. 양계초는 1903년 〈政治學大家 伯倫知理之學說〉(『신민총보』 38·39호 합본, 光緒 29년 8월)을 발표하여 블룬첼리의 국가학을 루소의 사회계약설과 대립되는 학설로 파악하였다. 양계초는 블룬첼리의 국가유기체설에서 국가의 유기적 통일을 보고 그와 반대로 루소의 계약설에서는 ‘사회’에 의해 상징되는 분산성을 보았던 것이다. 당시 중국의 현실에서는 자유·평등을 제창하는 루소의 사회성보다는 국가에 의한 유기적 통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블룬첼리의 국가학에서의 질서에 바탕을 둔 국가적 결합을 환영했던 것이다. 『신민총보』에서 양계초는 루소의 인민주권설에 기초한 공화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국의 분할과 다수의 전제군주의 출현을 가져오게 하는 망국의 길이 된다고 해서 아주 회의적이었다. 중국을 재건할 수 있는 길을 ‘恭順原理’에 기초한 가산적 「一君萬民」의 가산관료제를 「유기의 통일·유력의 질서」를 가진 근대관료제에로 발전시키려는데 그 통일국가적 발전의 방략이 있다는 것이었다.<sup>74)</sup>

양계초는 일본으로 망명한 직후부터 「청의보」의 지면을 빌어 청조의 전제와 부패를 근거로 기존체제의 전면적이고도 신속한 파괴를 주장하면서 자유의 고양, 공화제의 실현, 배만혁명(排滿革命)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여, 혁명파로 전환한 듯한 자세를 보였고 이것이 혁명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다.<sup>75)</sup> 그러나 그의 국가사상은 1903년 미주여행을 전후로 국가주의를 강화하여 개명전제론을 주장하고,<sup>76)</sup> 배만혁명에 반대함으로써 혁명파와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1903년 이전 그의 급진적 사상에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사회진화론은 보수적으로 변화된 정치적 입장 역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의 사회진화론적 개념을 이전과 다르게 해석하였다. 그는 5년전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을 동일한 사회학적 용어의 서로 다른 번역이라고 주장했으나 이제는 그

74) 姜萬吉, 「申采浩」,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p.p.11-13 참고.

75) Wen-Shun Chi, 〈Ideological Conflict in Modern China〉, p.p.61-62. ; 신연재, 앞의 논문, p121.

76) 양계초는 개명전제론을 입헌국가로의 변형과 준비를 위한 역사적 진화의 법칙상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의 한 단계로 규정하고, 중국은 ‘야만적 전제주의’가 장기간 계속되어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낙후되고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국가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적절한 정치제도는 개명절대군주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정치적 입장은 1906년 이후 성장하게 된 혁명론자들과 수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小野川 秀美, 「清末政治思想史研究」, 東京: 書房, 1975. ; 전복희, 앞의 책, p.p.93-94 참고.

것을 구분하고 ‘적자생존’을 강조하였다. 그는 적자생존이란 비록 열등하더라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는 우월할 수 있고, 반대로 비록 우자라고 할지라도 적자가 아니면 열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가장 우수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7)</sup>

일반적으로 청말의 개혁사상은 양무론-변법론-혁명론의 단계를 밟아 변화한 것으로 지적되지만 양계초의 그것에 관해서는 보편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변화의 형태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변화의 규정방식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는데, 대체로 그의 사상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했다는 전제하에 시계열상의 변이를 구명하는 것으로서 변법-혁명(또는 혁명에의 접근)-입헌(또는 개량)-보수주의(또는 문화주의)로 발전해 나아갔다는 것이다.<sup>78)</sup>

그러나 서구사상과 전통사상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가등홍지에게는 비교적 계기적으로 발현된 반면, 양계초에게는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규정방식에는 과도한 단순화에 수반되는 단편적 규정이 문제로 남는다. 양계초의 경우 일본망명기간 중(1898-1912) 다양한 서구사상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결과 자유주의, 국가주의, 국가유기체론, 급진주의, 점진주의, 제국주의가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어서 통시적인 시각에서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sup>79)</sup>

---

77) 전복희, 앞의 책, p93.

78) 민두기, 「중국근대사연구」, 일조각, 1973, p.p.339-363 ; 신연재, 앞의 논문, p121.

79) 신연재, 앞의 논문, p.p.121-122.



## 2. 新民說

국혼은 나라의 정신이며, 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양계초는 중국에 국혼을 가진 국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국혼을 가진 새로운 국민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신민”이다. 왜 이런 신민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청말 중국은 열강의 침입을 받았으나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양계초는 열강의 민족주의에 저항하고자 민족의 정신력을 쇄신시킬 필요성을 느끼었고 이에 따라 新民說<sup>80)</sup>을 내어놓았다.<sup>81)</sup>

양계초의 新民說은 사회진화론을 권위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한 가등홍지의 강권논리로부터 영향받아 점차 국가주의가 자유주의를 압도하는 형태로 자리잡아 간다. 사회진화론의 수용 이후 인과관계의 맥락에서 사회의 진화과정을 파악해 들어간 가등홍지의 영향으로 그는 물경천택과 우승열패가 자연이고 자강이 자립의 유일한 방책이며 우승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新民說이 주로 제국주의의 압력에 대응한 국가 사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니와 또한 新民說의 기반사상이 사회진화론임을 암시하는 것이다.<sup>82)</sup>

신민사상은 양계초 애국계몽사상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그는 1902년 1월부터 1904년 5월까지 『신민총보(新民叢報)』를 발간하면서 거기에다 ‘신민론’을 썼다. 바로 이 『신민총보(新民叢報)』의 창간과 함께 양계초의 신민사상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거기서 그는 신도덕과 신국가사상을 가진 신민의 상을 제시하였다.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우선 『신민총보(新民叢報)』의 신문명칭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sup>83)</sup> 『신민총보(新民叢報)』의 명칭은 『대학』에서 나온 신민의 뜻을 빌려쓴 것이다. 즉 국가를 새롭게 하려면 우선 국민을 새롭게 해야한다. 여기서 양계초는 중국 쇠약의 원인이 공덕의 결핍과 지혜의 불개에 있다고 지적하여 『신민총보(新民叢報)』가 중국의 이러한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을 새롭게 하는 주요한 방법이 교육이라는 것도 동시에 지적하였

80) 천하관념에 얽매어 국가의 존재를 망각해온 중국인들에게 국가의 중요성을 환기시킴으로써 그리고 전제정치의 영향으로 개인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인민들에게 자유와 권리의 가치를 일깨움으로써, 그의 〈新民說〉은 혁명과의 〈三民主義〉와 함께 근대 중국의 2대 사상으로 평가받는다.

81) “新民”은 유가경전 『대학』상의 중요한 개념의 하나이다. 『대학』에 보면 이 개념은 유가경세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덕수양과 사람에 대한 혁신사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구자억, 앞의 책, p64 참고.

82) 신연재, 앞의 논문, p.p.130-131 참고.

83) “本報取大學新民之意，以爲欲新我國，當先維新我民。市國所以不振，由於國民公德缺乏，智慧不開，古本報專對此病治之，務採合中西道德以爲德育之方針，廣羅政學理論，以爲智育之原本。本報以教育爲主，以政論爲附從，但今日世界所趨重在國家主義之教育，惟所論務在養我國家思想，古於目前政府一二事之得失，不暇沾沾詞費也。” 『新民叢報』第一號。

다. 『신민총보(新民叢報)』의 명칭이 ‘신민’으로 명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의 내용도 양계초의 신민사상으로 일관되었다. 이 신문의 제1호부터 14호까지 연재 발표된 저명한 「新民說」은 양계초의 신민사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저술이다.<sup>84)</sup>

양계초는 신민의 정의에 대해서 “신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가지고 있는 낡은 것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새로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래 있던 것을 비판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본래 없던 것을 새롭게 보충하는 것인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신민이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래 없던 것을 보완하여 새롭게 하는 것이다. 국가에 있어서 민족의 전통적인 장점을 발휘하고, 미흡한 단점을 다른 민족의 장점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또한 양계초는 “신민이란……새롭게 된 사람 즉 오민(吾民)을 말한다. 맹자는 ‘그대가 힘써 행하면 그대의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자체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며,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sup>85)</sup>”라고 하여 신민이라는 것은 한 두사람의 일이 아니며 모든 사람이 자립 자강해야 국가가 비로소 튼튼해 진다고 지적하였다. 신민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갖추어야 할 소질에 대하여 양계초는 공덕, 국가사상, 진취모험정신, 권력사상, 자유, 자치, 진보, 자존, 합군, 생리분리(生利分利), 의력, 의무사상, 상무, 사덕, 민기(民氣), 정치능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갖추면 중국 국민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sup>86)</sup>

양계초는 「신민론」에서 신도덕과 신국가사상을 가진 신민의 상을 제시하였는데, 이 신도덕을 그는 “우리의 군을 강하게 하고 진보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았다. 그리고 “공덕있음을 알고 신도덕과 신민을 창출한다”라고 공덕을 강조하였다.<sup>87)</sup>

공덕은 群體와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 양계초는 사람들이 공덕이 있는 것이 기타 동물과 가장 구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민족을 조직할 수 있고, 국가를 건립할 수 있는데, 그 관건이 되는 것은 공덕이다. 그래서 양계초는 공덕자는 군체의 영혼이고, 국가의 원기라고 보았다. 양계초는 또 이 공덕은

84) 新民說의 내용은 序論, 論新民爲今日中國第一任務, 釋新民之義, 就優勝劣敗之理證新民之結果而論及取法之所宜, 論公德, 論國家思想, 論進取冒險, 論權力思想, 論自由, 論自治, 論進步, 論自尊, 論合群, 論生利分利, 論毅力, 論義務思想, 論尚武, 論私德, 論民氣, 論政治能力 등의 20개 절로 되어 있다.

85) 夏曉虹, 「梁啓超文選」上冊, p105. ; 구자역, 앞의 책, p65.

86) 우림걸, 앞의 책, p.p.87-89참고.

87) 小野川 秀美, 앞의 책, p263. ; 전복희, 앞의 책, p84.

하나의 역사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내용, 표준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원시사회에는 자기의 공덕이 있었고, 봉건주의, 자본주의 사회에도 그 사회에 맞는 공덕이 있다. 공덕은 또 지역의 제약을 받는다. 민족의 습관, 각국의 전통과 중심임무가 다르면 공덕도 다르다.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그 핵심은 군과 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군체의 이익을 위하여 공헌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p>88)</sup>

그러나 그는 중국인에게는 군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공덕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sup>89)</sup> 그리하여 그는 전제정치에서 입헌정치로 이행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맞추어 合群의 기본 요건인 공덕을 신민의 사회윤리 및 국가윤리를 요구한다. 생존경쟁의 단위인 국가가 최고, 최대의 群으로 간주되는 한 그리고 공덕을 국가건설의 필수 요인으로 설정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공덕의 기능은 인민으로 하여금 국가이익 또는 공익을 자율적으로 인식하여 개인 가족 집단이 국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건설을 촉진하려는 것이었다.<sup>90)</sup> 20세기의 중국은 여기에 근거하여 중국인의 도덕관을 확립하여 사람들이 민족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양계초는 공덕을 ‘자기주장(self-assertation)’을 위한 도덕으로, 사덕을 ‘자기억제(self-restraint)’을 위한 도덕으로 생각하고 엄복이 혁슬리의 책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던 대로 ‘self-assertation’을 ‘자영(自營)’으로 ‘self-restraint’을 ‘극기(克己)’로 설명하였다.<sup>91)</sup>

그는 공덕과 사덕은 서로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보았다. 사덕은 외경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국민통합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덕의 하부체계로 흡수되어 공공성을 내포하여야만 그 가치가 인정되는 부류이다. 그러나 국가건설과 관련하여 사덕에 대한 공덕의 우월을 인정했다 해서 사덕의 가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사덕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집단의 이익에 기여하는 공덕의 기초여서, 사덕과 공덕이 결부되어야만 개인-집단-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도덕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에게 도덕의 본질은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동의 것이지만, 동시에 도덕의 형태는 사회의 진화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도덕은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상응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개인에게는 사덕이, 국가와 사회에게는 공덕이 적용되며, 구시대에는 구도덕이 신시대에는

88) 구자억, 앞의 책, p.p.66-67.

89) 양계초의 신도덕관은 공리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군을 위하여 좋은 것은 이로운 도덕이며 군을 위하여 해로운 것은 이로운 도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小野川 秀美, 앞의 책, p244. ; 전복희, 앞의 책, p85.

90) 신연재, 앞의 책, p132.

91) 小野川 秀美, 앞의 책, p260.

신도덕이 적용되어야 함으로써 그는 유교의 도덕적 절대주의로부터 탈피하여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고, 또한 공덕의 사덕에 대한 우월적 공존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sup>92)</sup>

양계초는 국가사상을 4개 수준으로 귀납하고 있는데, 첫째 한 개인에게는 나라가 있다는 것 즉 한 사람의 언행은 나라의 진보와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는 것, 둘째, 조정(朝廷)에서도 나라가 있다는 것, 즉, 나라를 사랑하는 각도에서 조정을 사랑할 것, 조정은 하나의 회사나 가정과 같아서 그 조정이 훌륭하면 사랑하고, 나쁘면 반항할 것, 셋째, 외족(外族)을 상대하여서도 나라가 있다는 것, 즉 외족이 침입하면 결사적으로 항거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는 일체를 희생할 것, 넷째, 세계에 대해서도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알 것, 이것은 세계 각국이 경쟁하는 각도로부터 조국이 경쟁에서 이기도록 생각하며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 어엿이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네 가지를 양계초는 국가사상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일부 사람들이 “천하는 알지만 국가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자기만 알고 나라가 있는 줄을 모르는” 잘못된 경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양계초는 진취 모험정신은 사회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력이라고 여긴다. 유럽과 미국이 근대화를 향하여 맹렬히 돌진하는 것은 진취 모험정신이 있기 때문이며, 중국이 명나라와 청나라 이후 계속적으로 낙오를 하는 것은 그 근원이 바로 진취 모험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양계초는 청나라 말기의 중국인에게 진취 모험정신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 방면의 능력을 키울 것을 특히 제창하였다.

양계초는 천부인권을 관철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충분히 발휘하고 보장을 받아야만 사회 또한 자연히 평등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강한데서 생긴다.”고 하고, 중국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런 권리를 향유하려면 개개 국민은 자기의 권리를 인정하고,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혹은 국가는 반드시 국민의 권리를 승인하고, 그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 이렇게 해야만 국가도 흥성하고, 국민 또한 부유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양계초는 또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은 단지 노예가 될 뿐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중화(中華)를 진흥시키고 싶으면 권리사상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양계초는 신국민으로 반드시 구비해야만 하는 것으로 자유사상을 들었다. 그가 먼저 쟁취하고자 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고 민족의 자유, 국가의 자유, 단체의 자유였다. 그는 단체의 자유가 없으면 개인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

---

92) 신연재, 앞의 논문, p133참고.

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원칙은 단체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었다.

양계초는 국가자치, 지방자치를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요구되는 것으로 그는 국민이 반드시 법을 알고, 법에 의하여야 하며, 자치사상과 자치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양계초의 자치는 국민자치능력의 배양과 제고를 포함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해서 민권, 자유, 평등, 법제 등의 방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양계초는 자존을 인도주의의 불가결한 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이 자존이 있어야 비로소 自愛, 自強, 生氣가 있고, 국가도 自存, 自愛하는 국민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自存을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청나라 말기 양계초는 곳곳에 산재한 노예주의를 개조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자존을 가질 것을 호소하였다.

합군은 단결력과 조직력을 가리키는 말이다. 양계초는 단지 합군하는 민족만이 세계를 향하여 날아올 수 있으며, 중국이 자립하고, 세계를 향하고자 하면 반드시 응집력과 단결력을 증강시켜야 한다고 여겼다. 장래 중국의 신국민은 헌법, 공화, 민권을 이해하고, 이런 것을 기초로 단결하는 힘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의력(毅力)은 굳센 의지나 기백을 의미한다. 목표를 확정한 후에 의력은 성공여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양계초는 뜻도 기력도 재간도 의지할 것이 못되지만 굳센 의지만은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그는 목표나 사업이 크면 클수록 그 성공은 더 어렵다고 보고, 이때 의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양계초는 의력을 배양하는 것을 국민성을 개조하는 하나의 중요한 관건으로 보았다.

양계초는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는 설 방법이 없고, 국가가 서지 못하면 국민의 권리도 없다. 권리를 향유하려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양계초는 신국민은 반드시 이러한 원칙을 알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하에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중국은 상무주의의 사조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양계초는 尙武精神을 제창하고, 국민이 심력(心力)을 강하게 하고, 담력을 증대시키며, 몸과 정신을 강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양계초의 상무는 국민의 체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신민(新民)이 갖추어야 할 덕목 12가지의 내용을 보면 모두가 국민성을 개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양계초는 당시 가장 큰 민족적 과제으로써 새로운 공민의 양성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민성을 가지고는 자강 구국하기가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이 이러한 새로운 국민 즉 신민을 길러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 신민은 국혼<sup>93)</sup>을 가진 국민으로써 국가를 구하고, 새로

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sup>94)</sup>

---

93) 양계초는 「中國魂安在呼」, 「中國的弱溯源論」, 「中國的武士道自敍」 등에서 국혼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94) 구자억, 앞의 책, p.p.67-73 참고.

## V. 申采浩의 梁啓超의 영향으로서의 신민사상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아시아 세계는 중화중심의 계층적 사대질서인 천하의 질서가 붕괴되고 국가평등권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열국경쟁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는 적자와 자강자만이 살아남고 자강국에는 약자에 대한 강자지권이 인정되는 냉엄한 힘의 세계가 되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은 적자가 되기 위해 자강지술로써 자강에 힘써서 그 자강의 주체인 국가의 확보가 급선무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자강주의가 청말의 엄복의 〈천연론〉과 양계초의 〈음빙실문집〉 등을 통해 수용되었으나 이 새 사조가 한말 지성들에 의해 한국적 상황에 적용되면서 국사관 형성을 중심으로 한 ‘국혼’ 즉 애국심 계몽의 형태로 정신주의적 국가관의 발견에 크게 이바지한다.<sup>95)</sup> 한말에 있어서 국권상실의 원인은 우리 민족이 적자생존의 세계에서 부적자였고, 우자-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강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자강론에 크게 공명하게 된 것이다.

청말 변법자강파<sup>96)</sup>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였던 양계초는 서구열강의 각축장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자강의 출발점을 자유·민권·국가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국민(新民)’을 형성하는 데에서 찾고 신민이 되는 첫걸음을 국가사상 혹은 국가관념을 깨치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다.<sup>97)</sup>

1898년 일본에 망명하였던 양계초는 한때 미국으로 갔다가 1902년 일본에 돌아와 『신민총보(新民叢報)』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는데, 여기에서 「新民說(新民說)」을 연재하고 신민사상을 고취하였다. 〈論新民爲今日中國第一任務〉라는 글에서 공덕의 함양과 국가사상·진취사상의 고취, 권리사상과 의무사상의 배양을 바탕으로 자유·자치·진보·상무정신 등으로 무장한 새로운 국민, 즉 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양계초의 新民說에 나타난 ‘신민’을 통한 ‘신국(新國)’건설의 이념은 독립협회운동 이후 우리나라에 새로 대두된 신민회 운동의 기본적 이데올로기가 되었고, 그것은 밖으로 합법운동으로 전개된 대한자강회운동과 표리관계를 가지면서, 비합법적 조직으로 신민회가 조직된 양면성을 가진 근대국가형성의 민족주의운동이었다.<sup>98)</sup>

가등홍지의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양계초가 일본 망명지에서 발간한 『청의

95) 강만길, 「申采浩」,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0, p.p.6-7참고.

96) 변법자강파는 서양이 강력하게 된 원인을 제도와 정신에서 찾아 근대적인 제도와 자유·민권·국가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하려고 하였다.

97) 우실하, 〈단체 申采浩 애국계몽사상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1905~1910)-사상적 배경 및 사상전개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8, p21.

98) 강만길, 앞의 책, p5.

보(淸議報)』(1898.11~1901.1)와 『신민총보(新民叢報)』(1902.1~1907.10)는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淸의보(淸議報)』는 서울과 인천에 판매·보급처를 두었다 한다.<sup>99)</sup> 이 외에, 1903년 2월 상해(上海)의 광지서국(廣智書局)에서 간행된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은 한국의 지식인들이 서구의 사회진화론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서구사상들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한다. 이 문집은 간행 즉시 서울로 들어왔으며,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담총(談叢)」을 토대로 한 「음빙실자유서(飲氷室自由書)」가 전항기(全恒基)에 의해 번역되어 1908년 4월에 간행되었고 기타 여러 글들이 당시 한국의 잡지 등에 부분적으로 전재되거나 번역되어 실리기도 하고 어떤 글들은 단행본으로 번역 출간<sup>100)</sup> 되기도 하였다.<sup>101)</sup>

위의 글처럼 조선조 말의 지성계에 대한 양계초의 영향이 두드러져, 독립협회 활동 이래 開化自強을 주장한 張志淵의 중개를 통해<sup>102)</sup> 신채호는 양계초의 변법자강 사상을 수용할 수 있었다.

신채호(1880-1936)는 19세기말-20세기초 제국주의 침략으로 내부의 모순과 외부의 충격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던 시대상황에서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활로 개척을 위한 애국계몽 사상가로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조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외세의 도전과 자주독립을 위협하는 민족 내부의 봉건적·반민족적 세력과 투쟁하는데 온 정열을 바쳤다. 그는 1898년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 적극 참여하여 자주독립과 민권자강운동에 小壯派로 활약했다. 신채호가 독립협회운동에 참여하여 활약했다는 사실은 그의 사상적 발전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1898년 독립협회운동을 기점으로 신채호는 朱子學徒로서 유교지식인에서 개화·자강의 민족독립사상을 수용한 계몽지식인으로서의 변모·전환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신채호는 서구사상인 사회진화론을 일본의 가등홍지·양계초 등 중

99) 이광린, 「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p261.

100) 韓末에 번역된 양계초의 저술들은 全恒基譯 『飲氷室自由書』(1908)를 비롯하여 玄采譯 『淸國戊戌政變記』 『越南亡國史』(1906), 申采浩譯 『伊太利建國三傑傳』(1907), 張志淵譯 『中國魂』, 李豊鎬譯 『生計學說』(1908), 譯者不明 『라란부인전』(1907), 李輔相譯 『匈牙利愛國歌 喝蘇士傳』(1908) 등이 단행본으로 간행되었고, 朴殷植譯 『學教總論』(1907) 및 『愛國論第一』(1907), 李沂譯 『政治學設』 등 많은 논저가 신문·잡지에 번역 소개되었다. 구자역, 앞의 책, p161 참고.

101) 우실하, 위의 책, p.p.16~17.

102) 양계초의 변법자강론은 한말(韓末)에 장지연(張志淵: 1864~1921)에 의해 수입되고 그에 의해 대한자강회의 정치적 실현에까지 전개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의 여러 사람들의 번역서들이나 상황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또 당시 한문과 한자가 지식인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물론 장지연이 선구적인 노력을 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이외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소개·수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일철,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고려대출판부, 1981, p68참고.



국의 변법자강론자들을 통해 수용하게 된다.<sup>103)</sup>

〈新國民說〉은 신채호 국가사상의 핵심-민족주의, 자유주의, 제국주의-을 대변한 것으로서, 사회진화론의 압도적 영향 아래 생존경쟁을 국제정치의 작동원리로 파악하고 強權의 관철을 합리화한 것이어서, 신채호에 대한 가등홍지와 양계초의 영향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신채호는 양계초의 자강론적 국가사상과 사관을 모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조건의 변화 및 차이에 대응하여 시종일관 立憲共和制를 지지하는가 하면, 1920년대 이후 武力鬪爭論과 無政府主義로 선회함으로써 사상의 독창성을 확보해 들어간다.<sup>104)</sup>

신채호의 신국민론은 「二十世紀新國民」<sup>105)</sup>이란 저술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저술은 양계초의 「新民說」을 본받아 쓴 것으로 보인다. 신채호가 양계초의 「新民說」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신채호의 「二十世紀新國民」과 양계초의 「新民說」의 목차를 비교하면 분명히 드러난다.<sup>106)</sup>

〈梁啓超 「新民說」의 목차〉<sup>107)</sup>

1. 序論
2. 論新民爲今日中國第一任務
3. 釋新民之義
4. 就優勝劣敗之理證新民之結果而論及取法之所宜
5. 論公德
6. 論國家思想
7. 論進取冒險
8. 論權力思想
9. 論自由
10. 論自治
11. 論進步
12. 論自尊
13. 論合群
14. 論生利分利
15. 論毅力
16. 論義務思想
17. 論尙武
18. 論私德
19. 論民氣

103) 姜成浩, 〈申采浩의 국가사상〉, 영남대 석사논문, 1999, p.p.6-7.

104) 신연재, 앞의 논문, p.p.158-159 참고.

105) 「二十世紀新國民」은 1910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되었는데, 국민과 각오, 국민과 도덕, 국민과 무력, 국민과 경제, 국민과 종교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림걸, 앞의 책, p91.

106) 우실하, 앞의 논문, p.p.22-23 참고.

107) 최홍규, 「申采浩의 민족주의사상」, 형설출판사, 1983, p290.

## 20. 論政治能力

〈申采浩 「二十世紀新國民」의 목차〉 108)

1. 국민과 각오 ① 세계의 추세 ② 문명의 진보 ③ 한국의 지위
2. 국민과 도덕 ① 평등 ② 자유 ③ 정의 ④ 의용(毅勇) ⑤ 공덕(公德)
3. 국민과 무력
4. 국민과 경제
5. 국민과 정치
6. 국민과 교육
7. 국민과 종교

양계초의 「新民說」이 사회진화론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채호의 신국민론도 사회진화론을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다. 신채호의 「二十世紀新國民」에서

“20세기의 국가경쟁은 그 국민 전체에게 있다. 따라서 그 승패의 결과가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국민 전체에 있다. 정치가는 정치로 경쟁하며... 실업가는 실업으로 경쟁하며, 혹은 무력으로 하며, 혹은 학술로 한다. 그 국민 전체가 우(優)한 경우에는 승리하고, 열(劣)한 경우에는 패배한다. ....” 109)

라고 하여 국민 각계 각층의 외부에 대한 경쟁력과 분발심을 크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존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신국민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신채호는 국민의 단결을 중시하여 국가경쟁의 사상을 펼쳤다. 즉 국가경쟁에서 이기려면 한두 사람에게 의해서는 안 되며, 국민 전체가 참여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신채호의 이러한 발상은 양계초가 「新民說」에서 이야기한 “夫列國竝立，不競爭則無以自存，其所競爭者非徒在國家也，而兼在個人”<sup>110)</sup>과 “新民云者，非新民者一人，而新之者又一人也，則在吾民之各自新而已”<sup>111)</sup>이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신채호가 신국민론에서 논술한 내용도 양계초의 「新民說」과 일치된다. 신국민론의 주요한 논의 내용은 「二十世紀新國民」의 끝부분에 附한 結에 잘 정리되

108) 「二十世紀新國民」, 1910.2.22~3.3.(대한매일신보), 『전집』, 별집, p.p.210-229 참고.

109) 「二十世紀新國民」, p.p.210-211.

110) 『飲氷室合集·專集』之四.

111) 『飲氷室合集·專集』之四.

어 있다.

吾儕가 二十世紀 新國民이라고 한 第一日부터 同民同胞에게 하언을 모하였는고, 曰 : 吾제가 國民의 覺悟를 論할 時에 世界趨勢, 文明進步, 韓國地位를 論하였으며, 吾제가 國民의 道德를 論할 時에 平等, 自由, 正義, 毅勇, 公共을 論하였으며, 吾제가 國民의 武力를 論할 時에 精神界와 物質界의 武力發興을 論하였으며, 吾제가 國民의 經濟를 論할 時에 勤勉, 進取, 國民經濟를 論하였으며, 吾제가 國民의 政治를 論할 時에 思想, 能力을 論하였으며, 吾제가 國民의 教育를 論할 時에 尙武教育, 義務教育을 論하였으며, 吾제가 國民의 宗教를 論할 時에 國家的 宗教를 論하였나니.....<sup>112)</sup>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새로운 국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질을 가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신채호는 覺悟, 道德, 自由, 毅勇, 武力, 進取, 經濟, 政治, 能力, 教育, 宗教 등을 거론하였다. 이것들은 양계초의 「新民說」에서 거론된 公德, 國家思想, 進取冒險, 權力思想, 自由, 自治, 進步, 自尊, 合群, 生利分利, 毅力, 義務思想, 尙武, 私德, 民氣, 政治能力 등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이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13)</sup>

위와 같이 새로운 국민(新民)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신채호는 覺悟, 道德, 自由, 毅勇, 武力, 進取, 經濟, 政治, 能力, 教育, 宗教 등을 언급하고 근대적 신국민으로서의 자세와 분발을 촉구했다.<sup>114)</sup>

「국민과 각오」에 관하여 제국주의·민족주의·자유주의가 팽배하던 세계의 추이와 문명의 진보를 논하고, 열국의 경쟁에 휘말린 한국의 현실과 지위를 논하였다. 그는 한국이 국권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①昏政으로 인한 경제의 빈약 ②천하대세의 不知로 인한 外境의 실패 ③봉건적 인습으로 인한 반문명적 수구의 탓으로 보고 「한국이 제국주의의 渦中에 入하여 민족주의의 苦競」에 처하여 도덕의 부패, 경제의 困乏, 교육의 부진, 주권의 상실, 민중의 타락이 오늘의 현실이라 하며 국민의 분발을 촉구했다.<sup>115)</sup>

「국민과 도덕」에 관하여 신국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도덕을 평등, 자유, 정의,

112) 「단재申采浩전집」 별집, p.p.228-229.

113) 우립걸, 앞의 책, p.p.92-93.

114) 강성호, 앞의 논문, p.p.18-22. ; 박충석, 〈申采浩의 국가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p.p.27-31 참고.

115)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p.212-214.

의용, 공공의 사상을 들고 도덕심을 발휘하여 신국민의 기초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평등」에 대해서는

“大凡 吾人の 人類가 彼 創造說과 如히 上帝가 창조하였던지, 又 彼 進化說과 如히 自然으로 進化하였던지, 人類는 平等이니, 然則强者도 人, 弱者도 人, 富者도 人, 貧者도 人, 王侯·將相·英雄·聖人도 人, 樵夫·牧童·愚夫·愚婦도 人이라, 如欺히 人類는 人格이 平等이요 人權이 平等이니, 嗚呼라.”<sup>116)</sup>

라고 하여 평등사상을 논하고, 이러한 평등주의가 행하여지는 국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평등사상을 가지려면 우선 민족, 관민,嫡庶 등 「亡國滅民의 階級主義」를 제거하여야 하고, 그런 후에야 國利民福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up>117)</sup>

「自由」사상에 대해서는

“自由는 吾人の 第二生命이라.…… 韓國은 從來로 「自由」 二字를 不知한 國이라, 古로 勢力界의 奴隸 되며, 思想界의 奴隸가 되며, 現實界의 奴隸가 되어……”<sup>118)</sup>

라고 하여 자유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奴隸思想을 清算하고 자유사상을 획득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신채호는 私利心を 버리고 미신을 타파하는 「正義」사상의 구현을 논했다. 당시의 위기 상황을 개인의 이익만을 채우려는 私利心과 국민의 정신을 병들게 한 미신의 만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정의사상의 회복을 주장했던 것이다.<sup>119)</sup>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평등·자유·정의사상은 毅勇이 있는 후에야 실행되며, 성공될 수 있다고 하여 「毅勇」의 중요성도 신국민의 사상으로서 함께 논하고 있다. 국민의 정신기력을 크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冒險·進取·強壯·忍耐할 줄 아는 의용정신의 배양을 주장했던 것이다.<sup>120)</sup>

또 한가지 그가 강조한 정신은 「公共思想」이었다. 단체와 공익에 힘써 사회·국가를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정신이 바로 그가 말하는 공공사상이었다.<sup>121)</sup> 이러한 공공사상과 함께 평등·자유·정의·의용사상의 발휘가 신국민의 기초임을 주장했다

116)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215.

117)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216.

118)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216.

119)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217.

120)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218.

121)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p.218-219.

던 것이다.

「國民과 武力」에 관하여 신채호는 20세기는 군국세계로서 강권만이 존재하는 세계이며 소위 武裝平和說을 빙자하여 군비확장에 급급하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열강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려면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논했다. 그는 국력이 쇠퇴한 원인을

“列強은 文도 崇하고 武도 崇하거늘, 韓國은 武만 崇하고 武는 抑하였으며, 列強은 人民이 兵役을 義務로 하는 同時에 榮光으로 하거늘, 韓國은 人民이 兵役을 奴役으로 知하였으며,……”<sup>122)</sup>

라고 하여, 文만을 숭상하는 잘못된 제도의 시정을 위해서는 國民皆兵主義 兵制를 편성하여 국민을 모두 強兵精卒로 만들고, 새로운 병기를 제조하며 정신적·물질적 무력을 갖추어 동시에 스파르타식 君國教育의 필요성을 역설했다.<sup>123)</sup> 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국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생각은 반복되어 강조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今日 韓國의 自由를 復하며 文明을 開할 法門은 卽 教育이다. 然이나 彼 國家에 利가 無하거나 或 害가 有한 教育 卽 無精神教育·舊式教育·魔教育是 결코 二十世紀 新國民의 教育이 아니니, 然則 今日 教育界에 國家精神·民族主義·文明主義 등으로 標幟를 立할 것은 勿論이어나와, 吾儕는 尙武教育 四字를 大聲으로 昌하노니……軍國民의 精神을 修養하며, 軍國民의 能力을 具備케 할지이다.”<sup>124)</sup>

라고 하여, 먼저 한국이 자유·문명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논한 다음, 신국민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신·민족주의·문명주의의 旗幟 아래 상무교육, 즉 군국교육을 진흥해야 한다고 하여 교육 중에서도 상무교육을 특히 강조했던 것이다.

「國民과 經濟」에 관하여 그는 먼저, 이 세계를 열국의 경제분투의 시대로 전제하고 낙후된 국민경제의 현실을 타개하는 길은 경제사상의 고취와 경제능력의 향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원인을 생산력의 부족·상업의 부진·유민의 다수·정치적 영향 탓이라 주장하고, 다시 그 쇠퇴원인을 세분하여 근면력 부족·진취력 부족·정치적 권리 부족·사회정책 등의 시설 부족·수백년

122)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220.

123)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220.

124)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p.226-227.

간에 걸친 악정의 결과·인민의 국민경제적 사상능력이 결핍한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sup>125)</sup> 그는 국민경제의 진흥과 개혁의 방법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1)國家的經濟上 直接方法은 國民同胞가 實行함이 可하다다.

(2)改良發達을 實行함이 可하다다

(3)世界人과 貿易을 大張하여 韓國으로 하여금 世界的 國家의 本能을 發揮하게 하여 世界的市場의 利益을 博할 等이 是라<sup>126)</sup>

즉, 국민이 자력을 합쳐 實業을 개발하고 국민경제의 직접 담당자로서 그 방법을 시행해야 하며, 국민경제적 자금자족체제를 위해 가능한 대로 實業의 개량발달을 실행하고, 무역을 신장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이익을 도모할 것을 주장했다.

「國民과 政治」에 관하여 한국인의 정치사상과 정치능력이 결핍하게 된 까닭은 전제정치와 害毒·경제의 빈곤·지식의 결핍 탓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국민은 하루 빨리 근대적인 정치사상과 능력을 배양하여 자주독립의 입헌국가 수립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27)</sup>

마지막으로 「國民과 宗教」에 대해서, 특정한 종교의 노예가 아닌 국가의식과 국민정신이 담긴 20세기 신국민의 종교, 즉 국가적 종교의 진흥과 필요성을 주장하였다.<sup>128)</sup>

이상과 같은 요건을 갖춘 국민이 바로 신국민이며, 이러한 신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국가의 자강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상과 무력을 앞세운 생존경쟁의 場에서 생존하여 독립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채호의 신국민상은 전통적 국가관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근대적인 것이었으며 자강의 실체 또한 국민의 정신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무교육과 국민개병주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민경제의 진흥을 논한 점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129)</sup>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또한 개화기 구국운동을 위한 정치결사인 신민회<sup>130)</sup>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1907년 4월 비밀리에 조직된<sup>131)</sup> 신민회는 안창호(安昌浩)의 발기

125)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p.221-223.

126)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p.224-225.

127)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p.225-226.

128) 「二十世紀新國民」, 『개전집』, 별집, p.228.

129) 박충석, 앞의 논문, p31참고.

130) 한국개화기에 신민회라고 하는 구국단체는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1903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창립된 신민회이고, 다른 하나는 1907년 서울에서 창립된 신민회이다.

131) 신민회가 비밀적으로 조직되었던 것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가 합법적인 국권회복운동을 못하도록 금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에 의하여 梁起鐸, 李甲, 全德基, 申采浩, 朴殷植, 李種浩 등이 중심이 되었다. 신민회의 회원은 전국에 걸쳐 약 800여명에 달하여 당시 전국 각지의 개화자강파 인사는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신민회를 조직하게 된 근본 취지이다. 물론 신민회는 비밀리에 조직하였던 만큼 공개된 설립취지문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당시의 신민회의 각종 주장을 살펴보면 그 취지를 알 수 있다. 신민회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하여 실력양성과 기회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국민을 새롭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신국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신민회가 주장한 실력은 국민의 실력 즉 民力이었다. 그들은 국민의 실력양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모든 부문 즉 지식, 사상, 관습, 경제, 정치, 문화, 원기(元氣) 등에서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실력양성의 의미는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이 신민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32)</sup> 이를 보면 국민 각자가 도덕적으로 수양을 쌓아 자격 즉, 실력을 갖추고 그래야만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므로 신민회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민회는 국민의 정신 혹은 도덕의 혁명을 이룩해 보려는데 목적을 두었던 단체라고 할 수 있다.<sup>133)</sup>

또한 이광수의 기록에 의하면 신민회의 목적은 “①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것, ②동지를 발견하고 단합하여 국민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③교육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의 교육을 진흥할 것, ④각종 상공업 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을 증진할 것 등”<sup>134)</sup>이었다. 이 정치 비밀결사인 신민회는 산하조직으로 청년 훈련기관인 청년학우회, 독립투사 양성기관인 대성학교, 그리고 출판기관 태극서관 등을 창립하여 구국운동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신민회의 명칭과 그 지도사상을 검토해보면 양계초의 신민사상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을 대성학교 한문과 교과서로 쓰고 애국지사로서 하여금 『음빙실문집』을 읽도록 하는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sup>135)</sup>

132)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국권회복운동」 『한국학보』 8-9집, 1977.

133) 구자역, 앞의 책, p.p.167-168.

134) 주요한, 「안도산전서」(상)·전기편, 범양사출판부, 1990, p72.

135) 우림걸, 앞의 책, p94참고.

## VI. 결론

이상에서 전통적 가치질서의 변화가 진행되는 19세기말-20세기초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인 양계초와 신채호의 사회진화론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19세기말-20세기초 전통질서의 내적 모순과 서구적 근대질서의 외적 충격으로 동아시아3국은 유례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서구제국주의의 침탈이 본격화됨에 따라 당시까지 전통적인 사고에 몰입해 있던 지식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인식의 필요성과 대응방식을 모색케 했다.

팽창과정에서 드러난 서구의 위세는 개혁지향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서구사상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주요동인이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 민주주의, 사회진화론 등 다양한 서구사상이 수입되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진화론이 급속히 그리고 널리 수용되었다.

19세기 중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풍미하기 시작한 사회진화론은 생존경쟁, 약육강식을 강조하는 그것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지지한다. 또한 제국주의의 요구에 의해서 사회진화론은 우생학, 인종주의와 결합함으로써 반이성의 이데올로기로 여겨져 왔고, 또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작용했다.

중국의 경우 사회진화론은 현실 인식의 이론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해갔다. 즉 제국주의의 침략, 이민족의 지배라는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지식인 각자의 지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즉 청조의 위기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중화민족의 위기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사회진화론에 대한 인식이 달리 나타났다.

19세기 후반 조선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진보적 세력들은 개혁을 지향하는 개화사상을 형성하여 개혁운동을 통한 국가의 독립과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개화사상은 실학의 실용적 사고와 청국의 공양학파의 개혁사상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전래된 서구의 문화와 기술에 의해서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청말 변법자강파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였던 양계초는 서구열강의 각축장에서 살아남는 길은 오직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자강의 출발점을 자유·민권·국가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국민(新民)’을 형성하는 데에서 찾고 신민이 되는 첫걸음을 국가사상 혹은 국가관념을 깨치는 데에서 시작하고 있다. 즉 청말 중국은 열강의 침입을 받았으나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양계초는 열강의 민족주의에 저항하고자 민족의 정신력을 쇄신시킬 필요성을 느끼었고 이에 따라 新民說을 내어놓았던 것이다.



양계초는 1902년 1월부터 1904년 5월까지 『신민총보(新民叢報)』를 발간하면서 거기에다 ‘신민론’을 썼다. 바로 이 『신민총보(新民叢報)』의 창간과 함께 양계초의 신민사상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거기서 그는 신도덕과 신국가사상을 가진 신민의 상을 제시하였다. 신민에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갖추어야 할 소질에 대하여 양계초는 공적, 국가사상, 진취모험정신, 권력사상, 자유, 자치, 진보, 자존, 합군, 생리부리(生利分利), 의력, 의무사상, 상무, 사덕, 민기(民氣), 정치능력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갖추면 중국 국민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개화기의 한국에 전래되어 많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조선조 말의 지성계에 대한 양계초의 영향이 두드러져, 독립협회 활동 이래 開化自強을 주장한 張志淵의 중개를 통해 신채호는 양계초의 변법자강사상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의 신국민 및 신도덕 관념, 外競사상, 權利鬪爭說, 強權論,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양립, 민권에 대한 국권의 우월성, 인과관계에 입각한 역사 서술, 사학과 애국심의 관계, 영웅사관의 제시와 철회, 민족의 역사 주체성, 국가유기체론,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연계 등에서 申에 대한 梁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신채호의 『讀史新論』의 경쟁사관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고, 그의 主種族 사상은 양계초의 강권논리를 그리고 국가유기체론도 梁의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나아가서 영웅에게 구국의 역할을 일임한 英雄待望論도 그러한 것이며, 『伊太利建國三傑傳』은 梁의 저술을 번역한 것이어서 梁이 申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신채호의 신국민론은 「이십세기신국민(二十世紀新國民)」이란 저술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저술은 양계초의 「新民說」을 전적으로 본받아 쓴 것으로 보인다. 신채호는 새로운 국민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질을 가져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각 오(覺悟), 도덕(道德), 자유(自由), 의용(毅勇), 무력(武力), 진취(進取), 경제(經濟), 정치(政治), 능력(能力), 교육(教育), 종교(宗教) 등을 거론하였다. 이것들은 양계초의 「新民說」에서 거론된 공덕(公德), 국가사상(國家思想), 진취모험(進取冒險), 권력사상(權力思想), 자유(自由), 자치(自治), 진보(進歩), 자존(自尊), 합군(合群), 생리분리(生利分利), 의력(毅力), 의무사상(義務思想), 상무(尙武), 사덕(私德), 민기(民氣), 정치능력(政治能力) 등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이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계초의 신민사상은 또한 개화기 구국운동을 위한 비밀정치결사인 신민회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신민회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삼고, 이를 위하여 실력양성과 기회를 중시하였다. 그리고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는 국민을 새롭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 “신국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신민회가 주장한

실력은 국민의 실력 즉 民力이었다. 그들은 국민의 실력양성을 위해서는 국민들을 모든 부문 즉 지식, 사상, 관습, 경제, 정치, 문화, 원기(元氣) 등에서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실력양성의 의미는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이 신민은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국민 각자가 도덕적으로 수양을 쌓아 자격 즉, 실력을 갖추고 그래야만 국권회복과 자주독립을 쟁취할 수 있으므로 신민회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민회는 국민의 정신 혹은 도덕의 혁명을 이룩해 보려는데 목적을 두었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민회의 명칭과 그 지도사상을 검토해보면 양계초의 신민사상과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동아시아 삼국은 전통질서의 내적 모순과 서구적 근대질서의 외적 충격으로 인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사회진화론의 수용은 시대적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양계초, 신채호 두 사상가를 분석대상으로 한 것은 이들의 사상이 전통성과 근대성의 갈등이 표출되는 시기와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게 되는 1900년대 초에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또한 조선말의 지성계에 대한 양계초의 영향이 두드러졌고, 사회진화론이 양계초를 거쳐 신채호에 수용되는 전과경로가 확인되고 있어, 이들의 사상이 유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의 국가사상에 대한 인식을 新民說과 新國民說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으로 양계초의 新民說과 신채호의 新國民說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 이들의 위상과 실체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깊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일차자료 :

『飲氷室合集』, 中華書局, 1993.

### 2. 이차자료 :

#### 1) 단행본

강만길, 『申采浩』, 고려대출판부, 1990.

구자역, 『梁啓超와 교육』, 원미사, 1998.

루이스 A. 코저, 신용하 박명규 역, 「사회사상사」, 일지사, 1992.

민두기, 「중국근대사연구」, 일조각, 1973.

毛以亭, 『梁啓超』, 명문당, 1989.

박승근, 〈世界文明의 來歷을 논함〉, 『大韓學會月報』 2호, 1908.3.

이혜경, 『천하관과 근대화론:梁啓超를 중심으로』, 문학과 지성사, 2002.

임중빈, 『단재 申采浩 그 생애와 사상』, 명지사, 1998.

우림걸, 『한국개화기문학과 梁啓超』, 박이정, 2002.

윤혜영, 「변법운동과 입헌운동」,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중국사 VI』, 지식산업사, 1989.

전복희,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한울아카데미, 1996.

전용재, 「찰스 다윈」, 민음사, 1998.

주요한, 「안도산전서」(상)·전기편, 범양사출판부, 1990.

홍병선, 〈진화론〉, 『公道』 2권1호, 1915.1.

허도학, 『중국근대화 기수 梁啓超』, 임방서원, 2000.

한무희, 「단재와 임공의 문학과 사상」, 예그린출판사, 1977.

潘强恩, 『被歷史“遺忘的角落”-梁啓超의 新民學說與 政治思想』, 新華出版社, 1999.

徐梁伯, 『中華近代 愛國主義精神 通覽』, 東南大學出版社, 1999.

王壽南 編, 「梁啓超」, 臺灣商務印書館, 1979.

王栻主 編, 「中國近代人物文集叢書-嚴復集」, 第五冊, 中華書局.

朱育和, 『辛亥革命史』, 인민출판사, 2000.

金榮作, 「韓末ナショナリズムの研究」,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75.

小野川 秀美, 「清末政治思想史研究」, 東京: 書房, 1975.

Schwartz, Benjamin I.,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 Yen Fu and the Wes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83.

Pusey. James Reeve, China and Charles Dawin, Cambridge:Harvard Univ.  
Press/London, 1983.

## 2) 論文 :

강성호, 「申采浩의 政治思想」,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99.

강혜숙, 「실력양성론자로서의 도산 안창호에 대한 교육적 고찰 : 사회진화론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김형배, 「丹齋 申采浩의 無政府主義에 관한 一考察 : P.크로포트킨과의 思想的連繫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도상범, 「梁啓超의 史論에 관한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1992.

박봉진, 「申采浩의 國家觀念에 대한 연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석사학위논문, 1990.

朴忠錫, 〈申采浩의 國家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9.

박경민, 「申采浩의 國家獨立思想」,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0.

백현숙, 「張志淵의 自強思想」, 梨花女大 석사학위논문, 1991.

신연재, 「동아시아 3국의 社會進化論 受容에 관한 연구 : 加藤弘之, 梁啓超, 申采浩의 사상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1.

신일철, 「申采浩의 歷史思想研究 : 梁啓超를 통한 西歐思想受容을 中心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75.

이춘주, 「단재思想의 自主指向性에 관한 研究」,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1989.

이희환, 「丹齋 申采浩의 研究史的 概觀」, 群山大學論文集 8, 1984, pp.137-151.

우남숙, 「自強·獨立 思想 연구 : 張志淵·朴殷植·申采浩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우실하, 「단재 申采浩 애국계몽사상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1905~1910):사상적 배경 및 사상전개의 기본구조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8.

조경란, 「進化論의 中國의 수용과 역사인식의 전환 : 嚴復·梁啓超·章炳麟·魯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5.

최치순, 「丹齋의 역사이론에 대한 기초적 고찰」,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1994.

허도학, 「梁啓超思想研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황종동, 「梁啓超 研究」,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1982.

### 3) 학술잡지 :

김하림, 「노신과 申采浩에 있어서 사회진화론의 영향 연구」, 朝鮮大外國文化研究, 1997.

박성진, 「사회진화론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20세기 초반 한국 지식인들의 논의와 그 성격을 중심으로」, 『靑溪史學』 12, 1996.

박성진, 「한국사회에 적용된 사회진화론의 성격에 대한 재해석」, 근현대사강좌 10, 1998.

박정심, 「박은식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자연인식」, 동양철학연구 21, 1999.

박응석, 「역사철학과 사회진화론 : 하버마스의 역사철학 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철학연구 26, 1998.

서정훈, 「19세기 말 영국의 사회진화론들 : '생존경쟁'의 단위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부산사학 32, 1997.

신일철, 「申采浩의 자강론적 역사상」, 『한국사상』 제10집, 1972.

신연재, 「구한말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그 영향 : 申采浩의 국가사상을 중심으로」, 울산대사회과학논집6, 1996.

신연재, 「스펜서(Herbert Spencer)의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 국제정치논총 34, 1994.

신용하, 「구한말 한국민족주의 사회진화론」, 동덕여대인문과학연구 1, 1995.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국권회복운동」 『한국학보』 8-9집, 1977.

안건호, 「1910년 전후 이상룡의 활동과 사회진화론」, 역사와현실 29, 1998.

조경란, 「중국에서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극복」, 『역사비평』 32, 1992.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世林韓國學論叢』 제1집, 1977.

이송희,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 부산사학 22, 1992.

- 전복희, 「한국 근대사에서의 사회진화론 연구」, 동북아 4, 1996.
- 전복희, 「사회진화론의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까지 한국에서의 기능」, 한국정치학회보 27, 1993.
- 최기영, 「사회진화론」, 한국사시민강좌 25, 1999.
- 홍완표, 「丹齊 申采浩 思想;教育 및 民族主義 思想을 中心으로」, 安城農專論文集 22, 1990.
- 汪榮祖, 「晚清變法思想分析論」, 『晚清變法思想論叢』, 臺北, 1983.
- 伊藤秀一, 〈進化論と中國の近代思想〉, 《歴史論評》 125,126, 1960.